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論 文 概 要

春亭 卞季良(1369~1430)은 恭愍王代에 태어나 世宗代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고려에서 朝鮮王朝로의 교체라는 과도기적 시기를 겪은 麗末鮮初의 대표적 인물이다. 고려 말에는 한 때 벼슬을 떠나 방황하기도 했으나 太宗이 즉위함과 동시에 높은 벼슬에 올라 20년간 文衡의 자리에서 사회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춘정은 대개 館閣的 문인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져 왔는데, 춘정의 시는 館閣的 문학이나 處士的 문학의 한 형태로 구분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춘정의 시문학 연구는 관각적인 측면에서 또는 처사적인 측면에서 한 특징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과 문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과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문학관을 작품과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춘정은 개인적으로는 유교이념에 정통한 유학자였지만 종교적 기원의 대상으로서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유교이념의 확대와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회 안정을 위해 불교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佛教的 遺習이 남아있던 사회에서 유교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던 조선 초기 儒臣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도교를 포용하여 儒·佛·仙 三教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相互 會通的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춘정의 儒佛道 調和思想은 실제 현실에 바탕을 둔 ‘時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의 문학세계는 조선 초기에 싹트고 있던 ‘載道之器的’ 문학관에 영향

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론 道만큼 文도 중시하여 詩作의 효용성을 중시 하였으므로 당시의 왕조와 임금을 찬양하는 데에 화려한 수식의 문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문학관을 염두에 두면서, 춘정의 시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관각풍의 시와, 그의 내면에 담겨 있는 처사풍의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관각적 경향의 시에서는 춘정의 시를 조선왕조의 찬양 및 권계, 선정의 의지 및 당부, 유자로서의 관인의식이 담긴 시로 나누어 춘정의 관각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그는 조선 초기 문형으로서 무엇보다 조선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썼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시관이나 시풍, 문사의 기교에 있어 모두 주옥같은 정수작들로써 조선 초기의 시문학 연구에 있어서 값진 자료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은 조선 초기 문학의 전범이 되어 후에 성현, 서거정으로 이어지는 관각 문인의 시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처사적 경향의 시에서는 춘정의 시를 은둔 및 자연동경, 불우함에 대한 극복의식, 산사에서 한정시로 나누어 당시 벼슬을 하면서, 또는 은거생활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춘정의 처사적 면모를 추출해 보았다. 춘정은 조선건국 후 두 차례에 걸친 은거시기가 있었으며, 이때 지어진 시들은 그의 처사적인 면모를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벼슬길에 나아간 후에도 자연에서의 생활을 동경하며 그리워한 시들을 통해 그의 내면에는 처사로서 살고 싶은 의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춘정의 성리학적 문학의식은 유가의 도통을 후세로 이어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은 후에 ‘載道之器的’ 문학관을 형성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그의 사상적인 경향은 후에 성현, 서거정으로 이어지는 관각 문인의 시풍으로 계승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를 포용하여 儒·佛·仙 三教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相互 會通的 시각으로 바라보는 儒·佛·道 調和思想을보여주고 있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요컨대 춘정은 조선왕조 초기에 문형으로서 作詩활동을 통해 신왕조에 대한 찬양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에 못지않게 자신의 내면을 대변해주는 서정시들도 많이 남겼다. 이로써 춘정의 한시가 조선의 한문학 지평을 크게 넓히는 데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 現況과 方法	3
II. 生涯와 時代的 背景	6
1. 生涯	6
2. 時代的 背景	15
III. 思想과 文學觀	18
1. 思想	18
2. 文學觀	31
IV. 卞季良의 詩世界	37
1. 館閣的 傾向의 詩	37
1) 朝鮮王朝의 讚揚 및 勸誡	38
2) 善政에의 意志 및 當付	46
3) 儒者로서의 官人意識	53
2. 處士的 傾向의 詩	60
1) 隱遁 및 自然憧憬	61
2) 不遇함에 대한 克復意識	69
3) 山寺에서의 閒靜	75
V. 文學史的 意義	82
VI. 結論	84

參 考 文 獻

ABSTRACT

I. 序 論

1. 研究目的

春亭 卞季良(1369~1430)은 恭愍王代에 태어나 世宗代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고려에서 朝鮮王朝로의 교체라는 과도기적 시기를 겪은 麗末鮮初의 대표적 인물이다. 고려 말에는 한 때 벼슬을 떠나 방황하기도 했으나 太宗이 즉위함과 동시에 높은 벼슬에 올라 20년간 文衡의 자리에서 사회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朝鮮은 儒教를 근간으로 하는 통치이념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의 佛敎를 대신하여 儒敎가 사회전반을 규정하는 틀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에 춘정은 集賢殿 大提學, 禮曹判書, 儀禮詳定所 提調를 맡으면서 유교적 통치이념의 보급과 실행을 담당하여 유교국가체제의 확립에 힘을 기울였다. 따라서 그는 鄭道傳, 權近, 河崙 등과 더불어 朝鮮初期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관각문인으로 일컬어져 왔다.

일찍이 世宗(1397~1450)은 그를 “東方의 大儒”라 하면서 “독서하는 규범은 대제학 변계량의 가르침을 받으라”¹⁾고 당부할 정도로 그의 文名은 높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安止²⁾(1377~1464)도 춘정을 가리켜 “가히 나라를 빛내는 文章으로써 마땅히 후대 사람의 올바른 모범이 된다”³⁾고 하였으며, 조선후기 영의정을 지낸 沈象奎(1766~1838)⁴⁾는 변

1) 權鼈, 『海東雜錄』 卷 6.

“其讀書規範, 受大提學卞季良指畫”

2) 본관 耽津, 자 子行, 호 皐隱, 시호 文靖, 1414년(太宗14) 親試文科에 급제하여 成均館博士가 되고, 1416년 文科重試에 급제한 후 1420(世宗2) 修撰, 1441년 藝文館提學 등을 거쳐 工曹參判으로 鄭麟趾와 함께 <용비어천가>를 지었다.

3) 安止. 初刊本の 跋文 [舊跋]

“...可謂華國之文章 宜爲後人之楷範...”

4) 본관 靑松, 자 可權, 호 斗室·彝下, 朝鮮 후기 정조 때 抄啓文臣이 되었으며,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두루 역임하였던 인물로서 노론 시파의 거두였다. <正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후 육조 판서와 전라도 관찰사 및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두루 거쳤다.

계량의 문학적 업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권양촌이 비록 선생(卞季良)보다 먼저 예문관과 성균관의 장을 겸임하였으나 文衡의 이름이 불게 된 것은 사실 선생이 맨 처음이었다. 전적으로 문예를 관장하여 文衡으로 불린 것이 선생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선생이야말로 文壇의 영원한 주인이다.⁵⁾

또 조선후기에 들어 正祖(1752~ 1800)는 “나는 항상 경영관에게 文章에 관하여 말하면서, 卞季良과 徐居正 등 몇몇 사람만이 비로소 사단의 영수로서 제왕의 계책을 도왔다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다 구차스럽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당시 춘정의 위치를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그의 한글 樂章에 초점을 두어 악장 문학을 연구하거나, 그의 경세사상·철학사상을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漢詩 분야에서는 춘정 한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각풍 한시는 배제한 채, 서정적인 시문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⁶⁾가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그를 전원문학적 시인으로 규정하는 논문도 발표되었다.⁷⁾

춘정은 대개 관각적 문인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져 왔는데, 그의 시는 관각적 문학이나 처사적 문학의 한 형태로 구분하기 어려운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의 생애를 바탕으로 시작품을 볼 때 대체적으로 벼슬하기

5) 沈象奎, 『春亭先生文集』 重刊序

“陽村權文忠 雖先先生兼拜藝文 成均 而文衡題名 則先生實首之 專典文枋 號爲文衡 其始自 先生先生 百世文苑之所尸祝”

6) 유희진, 「卞季良 시의 변모와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시가학회, 2003.

이경수, 「卞季良 시의 입신과 출처」, 韓國漢詩作家研究2, 1996.

변수남, 「卞季良의 문학연구」, 朝鮮大 敎育대학원 석사논문. 2006.

7) 변수남, 「卞季良의 문학연구」, 조선대 敎育대학원 석사논문. 2006.

전에는 처사적 경향을, 벼슬하여 영달한 후에는 관각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벼슬하기 전에 남긴 작품 중에서도 벼슬에 대한 의지나 유학자로서의 관료의식 등 관각적 면모를 보여주는 시들이 있으며 영달한 후에도 역시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은거하고픈 처사적 경향의 시를 남긴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춘정을 단순히 관각적 문인 또는 처사적 문인으로 한계지어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시작품을 유가적 또는 관각문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관각풍의 시와 은둔적, 전원적 성격을 보여주는 처사적 성격의 시로 나누어 시대상황에 따른 그의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듯 麗末鮮初의 전형적 인물인 춘정의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일은 그의 시세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고 아울러 당시의 문학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한문학사에 있어 그의 문학사적 위치를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研究 現況과 方法

변계량의 문학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의 문학적 가치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初期 연구는 춘정의 악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조규익은 <변계량 악장의 문학사적 의미>⁸⁾에서 당시 변계량의 현실적 위치와 그가 남긴 악장을 분석함으로써 작가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춘정의 시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조영호의 <춘정 변계량 한시의 연구>⁹⁾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그는 관인문학에서도 전형적인 관인들의 문

8) 조규익, 「卞季良 樂章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회, 1989.

9) 조영호, 「春亭 卞季良 한시의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학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체질의 문학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춘정은 麗末의 처사문학과 15세기 후반 훈구 관료들의 관인 문학의 중간적 성격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춘정은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종교적으로는 불교에 귀의하였으며, 명분만을 고집하거나 학문에 차등을 두지 않는 實用的인 사상을 가졌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사상이 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밝히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오연정은 <조선초기 변계량의 불교인식>¹⁰⁾이라는 논문에서 춘정의 佛敎觀과 儒佛 調和思想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그의 불교사상과 문학작품을 연계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유호진은 <변계량 시의 변모와 그 문학사적 의의>¹¹⁾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그의 출처의식의 변화와 관련하여 춘정의 시세계를 고찰하였다. 그는 춘정의 시가 조선전기 문학의 태동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여 그의 문학사적 위치를 높이면서도, 출사 후 춘정이 보여준 관각적인 시문학에 대해서는 李齊賢, 李穡, 鄭夢周, 鄭道傳, 權近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말 사대부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문학을 퇴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麗末鮮初의 복잡한 정치상황하에서 춘정의 개인적인 고뇌를 立身과 出處의 관점에서 다룬 이경수의 <변계량 시의 입신과 출처>¹²⁾는 춘정의 시를 통해 출처의 갈등과 인식의 변화 등 그의 내면세계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최근의 연구로는 변수남의 <변계량의 문학 연구>¹³⁾가 있는데 그는 춘정의 시를 전원문학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춘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반박하고 춘정의 시를 주제의식에 따라 세분하여 분석하는 등 기존의 논문보다 연구의 범위를 훨씬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관각적,

10) 오연정, 「朝鮮初期 卞季良의 불교인식」,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11) 유호진, 「卞季良 시의 변모와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시가학회, 2003.

12) 이경수, 「卞季良 시의 입신과 출처」, 韓國漢詩作家研究2, 1996.

13) 변수남, 「卞季良의 문학연구」, 朝鮮大 敎育대학원 석사논문, 2006.

처사적, 방외인 문학 등과 같은 분류를 부정하면서 춘정의 문학을 전원문학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역시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다. 뒤를 이은 김성언의 <춘정 변계량의 관각풍 한시에 대하여>¹⁴⁾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춘정의 관각풍 한시를 통하여 춘정의 조선조 문형으로서의 역할과 이에 따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으나, 그에 합당한 시들을 몇 편 소개하는 것에 그쳐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연구자들이 거둔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춘정의 시문학 연구는 관각적인 측면에서 또는 처사적인 측면에서 한 특징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과 문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상황과 그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문학관을 작품과 연관시켜 종합적으로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II장에서는 춘정 문학의 형성배경을 生涯와 時代的 背景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애에서는 그가 겪었던 시대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적 배경에서는 당시 문단의 흐름을 살핌으로써 조선전기 시단에서 요청되던 문학관을 이해하여 춘정의 시를 조명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는 문학작품의 근간이 되는 思想과 文學觀을 살펴 그 특징을 규명하고, 그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사상에서는 시대적 특성 및 교우관계에 근거하여 그의 儒·佛·道의 조화로운 사상이 형성된 배경과 함께 이러한 사상적 특성이 나타난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관에서는 당시에 그에게 영향을 준 문학관과 더불어 그의 문학의식이 형성된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IV장에서는 춘정의 시를 관각풍의 시와 처사적 성격의 시로 분류하

14) 김성언, 「춘정 변계량의 관각풍 한시에 대하여」, 동아대학교석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7.

여 살펴봄으로써 본격적으로 그의 시세계 전반을 탐색하고자 한다. 관각 풍의 시에서는 크게 조선왕조의 찬양 및 권계, 선정의 의지 및 당부, 유자로서의 관인의식이 나타난 시로 나누어 살펴보고, 처사적 성격의 시에서는 은둔 및 자연동경, 불우함에 대한 극복의식, 산사에서의 한정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 V장에서는 춘정 시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그의 작품에 대한 제가들의 평을 토대로 필자가 본고에서 논증한 사실을 재평가하여 춘정의 시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제 VI장은 결론으로, 본고에서 춘정과 춘정의 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그의 문학적 특징을 드러내고 아울러 후일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텍스트는 1998년 민족문화추진 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 문집총간』 제 8집에 있는 『春亭集』이며, 『春亭集』의 420제(547수)의 한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II. 生涯와 時代的 背景

1. 生涯

춘정 변계량은 1369년(恭愍王 18) 檢校判中樞院事 玉蘭과 濟危寶副事 曹碩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本貫은 密陽, 字는 巨卿, 號는 春亭이다. 춘정 집안의 시조는 高麗 成宗代에 文科에 급제하고 門下侍中으로 八溪 君에 봉해진 卞庭實이나, 그의 祖父인 卞原 이전에는 뚜렷한 관계진출을 보이지 않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비로소 중앙에 진출한다.¹⁵⁾ 그리고 춘

15) 『世宗實錄』 卷 150. 地理志, 慶尙道 密陽都護府

정의 父親인 玉蘭이 戶曹, 兵曹, 吏曹判書를 역임하면서 家門의 顯達이 시작된다.

춘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4세 때 이미 對句의 개념을 알고, 6세 때 聯句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한다. 1382년(禡王 8)에는 14세의 나이로 進士試에 합격하였고, 이듬해 生員試를 거쳐 1385년(禡王 11) 17세의 어린 나이로 文科에 등제했다.¹⁶⁾ 생원, 진사시의 합격 및 문과합격을 통하여, 그는 鄭夢周, 李崇仁, 權近 등의 당대에 굴지하는 명사의 문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太宗代의 정치적 실력자이면서 대학자였던 河崙을 스승으로 섬기기에 이른다.

그는 19세(1387)의 나이로 처음 벼슬길에 올랐는데 그 후 24세 때 (1392) 太祖가 즉위하고 그해 4월 圃隱이 선죽교에서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에 춘정은 관직을 제수 받았음에도 병을 청탁하고 출사하지 않는다. 27세(1395)에는 부친상을 입고 三年喪을 마친 뒤, 그해(1397) 여름 이씨왕조에 처음으로 벼슬하여 奉直郎敎書監丞知製敎를 제수 받는다. 1398년에는 형 卞仲良이 鄭道傳 일파로 몰려 ‘제 1차 王子의 亂’ 때 희생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형의 죽음과 동료들의 죽음에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두 번째 벼슬을 버리고 은거¹⁷⁾하면서 3년여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 후 司宰少監, 直藝文館, 藝文應敎, 藝文館直提學 등 淸職을 역임하다가 39세 되던 해 4월에는 임금이 친히 베푼 시험에서 文科 第一로 及第하게 된다.¹⁸⁾ 그 후 그는 예문관 대제학 겸 성균관 대사성을 맡으며 20여 년간 조선 최초의 문형¹⁹⁾이라는 명예를 얻었고, 이로

16) 鄭陟, <行狀>

“壬戌 公年十四 中進士 癸亥 中生員 乙丑 公年十七 登第”

17) 卞季良, 『春亭集』 卷7, <永樂十九年月日封事>.

“...明年戊寅(1398, 太祖 7) 進授司憲侍史 八月 國家有變(제1차 王子의 亂)置散...”

18) 『太宗實錄』 卷13, 7年 4月 丙午

“御仁政殿 方親試文科勝 賜藝文館直提學卞季良 吏曹正郎趙末生 成均學正朴瑞生 乙科第一等...”(이 때 甲科를 칭하지 않고 乙科 1人부터 순위가 시작된 점과 《太宗實錄》 卷14, 7년 7월 병인조에 卞季良이 친시한 명단이 든 죽자를 바친 점에서 그가 壯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써 자신의 학문과 문장을 널리 인정받게 된다.

40세에는 成均大司成 柳伯淳과 더불어 생원을 뽑는 試員이 되었고, 42세에는 河崙, 鄭以棼, 柳觀 등과 더불어 <太祖實錄>을 撰修하기 시작했다. 46세에는 南在, 金汝知 등과 더불어 생원들을 試取하였고, 49세에는 南在, 孟思誠 등과 더불어 문과를 주관하고 讀券官이 되었다. 다섯 번의 會試와 세 번의 司馬試, 두 번의 親試의 독권관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그는 엄정한 인사관리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²⁰⁾하였다.

世宗이 즉위하자 그는 세종의 인재관에 부응하여 출중한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적 식견의 인재들을 대거 선발하기도 하였는데 그 해에 제술로써 金叔滋 등 33인의 선비들을 뽑아²¹⁾ 金宗直, 李滉 등 영남학과 형성의 단초를 마련한다. 52세에는 춘정이 集賢殿을 설치하여²²⁾ 문신 중에 나이 젊고 총명한 자를 택하여 경서를 강습케하고 고문을 준비토록 여쭙니 임금의 靑宮에 설치하고 춘정을 집현전대제학에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湖堂²³⁾을 건의하고 賜暇讀書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그가 한글 창제에도 모종의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해 4월에 <高麗史災異>를 초록하여 바치고 다음해 柳觀과 더불어 <高麗史>를 교열하기에 이른다. 춘정은 사망 직전까지 <太宗

19) 沈象奎, 『春亭先生文集』 重刊序, 『春亭集』 卷1, p.3

20) 『太宗實錄』 卷27, 14年 2月 更午.

“…命監春秋館事南在 同知春秋館事卞季良 藝文館提學金汝知 掌會試 取新生員趙瑞康等三十三人 權蹈 成概 李賀 李隨 皆朝士也 而無中試者 可見掌試之公也…”

21) 金宗直, 『佔畢齋集』 彝尊錄 上, 先生紀年 第二.

“永樂十七年己亥 本朝世宗莊憲王六年 是年春 上用故事即位之始必取士 故教中外依式年例開試 公以安東鄉試第二人赴京 藝文館大提學柳觀 議政府參贊卞季良 禮曹判書許稠 知貢舉曹公尙治榜 丙科第一人…”

22) 金是瓚, 『春亭集』 重刊識.

23) 湖堂 : 호당이란 독서당의 별칭으로 지금의 옥수동 한강변 두모포(豆毛浦)에 있었다. 1426년(세종 8)에 학문 과 덕행이 뛰어난 문신들에게 수양과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정에서 장소를 제공하여 설치하였다. 호당에는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우대하여 사가(賜暇)를 주어 독서(讀書= 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고 하여 문신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길도 빨랐다. 조선시대에 사가독서(賜暇 讀書)의 혜택을 받아 호당(湖堂)에 입소한 문신(文臣)은 270명이다

實錄>의 편수를 맡았으며, 이를 마쳤으나 진상하지 못하고, 세종 12년(1430) 4월, 병으로 사직하고 같은 달 24일에卒하니 향년 62세였다. 임금 시호를 내리기를 ‘文肅’이라 하니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문기를 좋아함이 ‘文’이요, 마음을 굳게 잡고 일을 결단함이 ‘肅’이라 하였다.

춘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文弱하며 성격에 있어서도 인색하였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변계량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成俔은 『慵齋叢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陽村·春亭이 문명을 잡기는 하였으나 牧隱에게 미치지 못하였으며, 春亭은 더욱 비약하였다.²⁴⁾

春亭 卞季良이 陽村에 이어 文衡을 맡았으나 문장은 나약하였다. 文士 金久罔은 시를 잘 짓기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는데, 항상 춘정이 지은 시를 보고 입을 막고 크게 웃었다. 하루는 춘정이 휴가를 얻어 시골에 있는 별장에서 놀면서 우연히 시 한 구절을 지었는데,

‘허백한 것이 하늘을 이으니 강가엔 새벽이 되었고 (虛白連天江渚曉), 암황한 것이 이 땅에 서리니 들에는 버들가지 늘어진 봄이 왔구나 (暗黃浮地柳郊春)’

하고, 아름다운 연구(聯句)를 얻었다고 자부하며 장차 상경하여 임금께 상주(上奏)하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구경에게 말했더니, 구경은 말하기를, “기가 아주 졸렬한데 만약 이 시를 상주한다면 이는 임금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옛날에 지은

24) 성현, 『慵齋叢話』 1, 이규익, 『연려실기술』 별집14. “陽村春亭雖秉文柄 不能及牧隱 而春亭尤卑弱”

시에,

‘역정에서 술잔을 잡으니 산이 문 앞에 당(當)해 있고 (驛亭把酒山當戶), 강군에서 시를 읊조리니 비는 배에 가득 차는 도다 (江郡哦詩雨滿船)’

라고 한 것이 있으니, 이런 것이 상주함직한 시이다.” 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춘정에게 알리니, 춘정은 말하기를, “당(當) 자가 온 당치 못하니 임(臨) 자로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그 사람이 또 이를 구경에게 얘기하니, 구경은, “사람들이 춘정은 시를 알지 못한다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古詩에, ‘남산이 문에 당하니 더욱 분명하도다 (南山當戶轉分明)’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그 사람이 또 춘정에게 말하니, 춘정은, “고시에, ‘청산이 황하에 임(臨)하였도다 (靑山臨黃河)’하지 않았는가. 구경 그 자신이 시를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가 지은 것을 비웃는다.” 하였다.

하루는 춘정이 <樂天亭記> 를 짓고 구경을 불러 이를 보게 하니, 구경이 말하기를, “이 기(記) 가운데 성리(性理)를 논한 곳은 『中庸』의 序와 흡사하다.” 하였다. 구경의 사람됨이 재주를 믿고 남을 멸시하며 후배로서 선배를 경멸하므로 춘정도 또한 마음에 좋지 않게 여겨 마침내 혐오하고 틈이 생기니 끝내 현달한 관직을 얻지 못하였다.²⁵⁾

손님을 맞아 술을 마실 때에도 마신 잔 수를 짐작하고는 술병을

25) 成俔, 『慵齋叢話』 3.

“卞春亭繼陽村掌文衡 然文章軟弱 文士金久罔以能詩鳴世 每見春亭所製 掩口大笑 一日春亭告暇遊別墅村庄 偶占一句云 虛白連天江渚曉 暗黃浮地柳郊春 自負得美聯 將入京上奏 有人言諸久罔 久罔曰 詩甚鄙拙 若上奏則是罔上也 我昔有詩云 驛亭把酒山當戶 江郡哦詩雨滿船 此直上奏之詩也 其人復告春亭 春亭曰 當字未穩 不如改下臨字 其人又言諸久罔 久罔曰 人謂春亭不知詩 信然 古詩不曰 南山當戶轉分明 其人又告春亭 春亭曰 古詩不曰 靑山臨黃河 久罔眞不知詩 反笑我爲 一日春亭作樂天亭記 招久罔使觀之 久罔曰 此記論性理 酷似中庸序 久罔爲人恃才凌人 以後進輕蔑前輩 春亭心亦不平 遂成嫌隙 而終不得顯官”

조심스럽게 봉하여 거둬들이므로 그의 안색을 살피고는 가버리는 손님이 자못 많았다. 흥덕사에 머물러 오랫동안 《國朝寶鑑》을 엮을 때, 세종께서 그의 문장을 존중히 여겨 궁중에서 하사하는 찬(饌)이 끊이지 않았고, 고관과 동료들도 다투어 酒食을 보냈는데, 하나하나 여러 방 속에 저장하였다. 날이 오래되어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담 밖에까지 나도, 씹으면 언덕에 갔다 버릴지언정 종과 시중들은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하였다.²⁶⁾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춘정의 인품과 문학을 폄하하고 있는 사람은 성현이다. 즉 문약하다는 점과 김구경의 예를 통한 인색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권근, 변계량이 문병을 잡기는 하였으나 권근은 이색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춘정은 더욱 비약하다’는 평은 이후 변계량의 문을 평할 때 하나의 정설이 되었다.

그러나 춘정이 文弱했다는 평은 그가 남긴 <금은의 공물을 면제해 줄 일을 청하는 表箋文>, <陳設>, <대마도를 회유하는 宣旨>, <재차 대마도를 회유하는 宣旨> 등의 글을 통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해마다 조선에서 중국에 바치는 조공이 과도하고 부당하니 면제해 달라는 공의 편지는 중국황제가 즉석에서 허락할 정도로 명문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가히 글안의 백만 대군을 한마디 외교로 물리친 서희의 업적에 견줄 만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변계량의 인색함으로 인해 김구경이 크게 현달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정확한 근거 없이 과장되어 전해진 이야기일 뿐이다. 沈象奎는 <春亭先生文集重刊序>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6) 성현, 『慵齋叢話』 3.

“對客飲酒 酌其盞數 謹封壺壘而藏之 客見顏色而去者頗多 常在興德寺 撰國朝寶鑑 世宗重其文章 仙廚賜饌絡繹 宰樞僚友爭送酒食 一一貯諸房內 日久生蟲蛆 臭達牆屋 腐則棄于邱壑 蒼頭僮從 未霑一漚”

세상에서 전하는 이야기에 김후(金侯) 구경이 선생의 시를 헐뜯었다는 이유로 배척당하여 결국 출세하지 못하였다고들 한다. 그런데 지금 선생의 문집 가운데 선생이 김후의 시운에 따라 지은 시에 그를 매우 칭찬하고 매우 가깝게 여긴 뜻이 시어에 넘쳐흐른다. 이로 보건대, 필시 김후가 어떤 사람에게 모함 당하였으나 선생이 구제하고 싶어도 되지 않았고 사랑해도 도와주지 못한 것이니, 전하는 이야기가 허탄하고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또한 이 문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⁷⁾

이러한 심상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김구경 관련 왕조실록을 보면 변계량이 김구경의 출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김구경은 태종 10년 병을 핑계 삼아 서관장을 사면하여 사간원과 좌헌납 송희경에 의해 탄핵되어 괴주로 귀양을 간다.²⁸⁾ 태종 12년 1월 15일에는 순금사에 갇히고 같은 해 3월 30일에는 요언(妖言)을 만들어낸 혐의로 장 백 대에 길주로 유배를 간다. 세종 1년 12월 12일 이종무의 과전을 마음대로 돌려준 까닭으로 의금부 옥에 갇힌다. 같은 해 같은 달 21일에는 의금부에서 임금에게 형장 80대를 치라 하나 세종이 구경을 혼미 우활한 선비로 간주하여 50대만 때리게 한다. 세종 2년에는 사헌부에서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기를 청하고 세종 13년에는 임금이 직접 김구경의 인품을 게으르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변계량과 김구경에 대한 많은 부분이 과장되고 진실 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춘정의 업적과 공로를 살펴보면, 太宗 16년에

27) 沈象奎, 『春亭先生文集』 重刊序.

“世傳金侯久罔以訾訾先生詩語爲所擯 卒坎珂 今集中有次金侯韻 推獎甚重 愍惜至深 溢於詞意 是必金侯爲何人所陷 欲救不得 愛莫助之 可知傳者之妄 而如此者”

28) 『태종실록』 19, 태종 10년 20월 20일(정사).

는 임금의 무능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우제 실시를 건의하여 기우제문을 직접 쓰고 하늘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 이로써 다른 신하들에게 여러 신에게 아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춘정의 元旦祭天論²⁹⁾은 중국에 대한 사대에서 벗어나, 제후국가도 하늘에 제사지낼 수 있다는 논의를 일으켜 성사시키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³⁰⁾

또 춘정은 외교적으로도 크게 활약한 인물이다. 당시 중국이 금을 바칠 것을 요구하자 부당함을 건의하는 표문을 지어(1429) 영구히 면제 받게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³¹⁾ 한번은 왜적이 남쪽 변경에 침입해 와서 사람을 죽이고 집들을 불태우자, 太宗이 말하길 “만약 掃除하지 않으면 어찌 漢나라가 匈奴에게 욕을 당하는 것과 다르겠는가”하니 君臣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춘정만이 유독 정벌할 계획을 내니 임금이 기뻐 그 계책을 받아들였다.³²⁾ 이는 유명한 대마도 정벌을 말하는 것으로 그의 <行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에게 명령하여 교문을 짓게하고 장천군 이종무로 하여금 삼군을 거느려 정벌케 했는데 마침 풍세가 불순해서 비록 대첩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로부터 왜노가 두려워서 감히 지경을 범치 못하였다. 또한 포로로 잡아온 것들을 죽일 것에 대하여 의논할 때 공은 단연 불가하다하니 임금도 이에 따랐다.”³³⁾

29) 太宗 16년 가뭄이 심해 오곡이 말라 시들자 임금이 걱정되어 여러 신에게 祭를 올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에 春亭이 上宰께 祭지내기를 진언했다. 祭天은 天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明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朝鮮에서는 여지껏 피해온 터였다. <春亭集 解題>, p.7.

30) 『春亭集』 1, (卷7, <永樂十四年丙申六月初一日封事>) pp.292~297. <太宗實錄>16年6月1日 辛酉.

31) 鄭陟, <行狀>

“己酉 上會大臣命曰 我國不產金銀 而歲貢無慮千餘兩 終不可繼也 其議蠲免之策 公啓曰 宜具由奏請 上卽命公製表陳情 得蒙允 永除是貢”

32) 『世宗實錄』 卷48, 12年 4月 癸巳.

“...又明年(1419, 世宗 元年) 倭奴侵我南 多殺掠 太宗取季良之言 議征討...”

33) 鄭陟, <行狀>

“命公製教文 數倭奴罪惡 以長川君李從茂 將三軍往征之 適風勢不順 雖不得大捷成功 自是以來 倭奴 慙伏 不敢 犯境 又議殺俘擄人物 公堅執不可 上從之”

한편 太祖가 호패의 법을 만들었다가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서 폐지하는 일이 있었는데, 세종이 이르기를 “지금 만일 다시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두렵다.”하니, 변계량이 아뢰기를 “한 고을 어른이 되면 마땅히 한 고을의 호구 수를 알아야 하고, 한 나라의 주인이 되면 마땅히 한 나라의 호구를 알아야 하며, 천하의 주인이 되면 천하의 호구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호구를 꺼려함은 호적의 규칙을 빠져나가 부역을 피하려는 것입니다.”하니 임금도 그렇다고 긍정하였다고 한다.³⁴⁾ 이는 밖으로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안으로는 나라의 충신으로서 왕권강화에 힘썼던 춘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世宗實錄> 기록에 따르면, 세종이 <太祖實錄>을 열람하기를 요구하자 춘정은 임금도 함부로 볼 수 없다하여 史庫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³⁵⁾ 이처럼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역사의식도 투철하였으며 불의에는 임금에게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춘정은 麗末鮮初의 격변기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의 재능과 더불어 왕과의 밀접한 관계에 힘입어 조선 전기 정치·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비록 문약하다거나 인색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20여 년 동안 문형의 자리에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 없이 공평하게 인재를 선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자부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34) 李肯翊, 『練藜室記述』 別集 卷12, 政教典故, 號牌.

“世宗八年丙午, 上曰 向者大臣 請復立號牌之法 太宗亦已行之 以民不願罷之 今若復行 恐民之怨咨也. 卞季良曰 爲一邑之主則當知一邑之戶口, 爲一國之主則當知一國之戶口, 爲天下之主則當知天下之戶口. 今民憚號牌者欲脫漏戶籍 規辭賦役矣 號牌之法宜當舉行 上然之.”

35) 『春亭續集』 卷 4. <世宗實錄>

“十二月 庚午 御經筵謂知申事郭存中曰 太祖實錄 只書一本 若後日遺失則不可又寫一本 納春秋館一本 吾常見之 其傳教於春秋館 知館事卞季良啓曰 太祖實錄 多密事臣與河崙知之 他人不知不可又寫一本 而使衆人知之請擇吉日納于史庫從之.”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보좌하여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무엇보다 왕권강화에 힘썼다. 요컨대, 춘정은 太宗의 왕권강화를 위한 제반의 개혁을 실행하여 왕권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라는 통치의 기본구조를 확립하는데 바탕을 마련했던 인물이라고 하겠다.³⁶⁾

2. 時代的 背景

춘정은 고려 공민왕 18(1369)년부터 조선 세종 12(1430)년까지 여말과 선초를 걸쳐 살았던 인물이고, 이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였다. 대외적으로는 元·明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倭寇와 紅巾敵의 침입으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정치상황이 초래되었다. 고려는 新·舊세력의 갈등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의 부패, 경제의 붕괴, 원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폐단 등으로 인하여 變化와 刷新이 필요하였다. 이에 온건한 개량 노선을 지지하는 측과, 급진적 개혁 노선을 지지하는 측이 생겨나 서로 간에 갈등을 빚었다.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고려 왕조 테두리 속에서의 개혁을 주장하는 과와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과와의 대립이 발생하였는데,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李齊賢, 李穡, 鄭夢周, 吉再 등이 있고,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鄭道傳, 尹紹宗, 南閔, 鄭擢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이들 급진파 세력들과 이성계가 손을 맞잡음으로써 李氏 朝鮮의 탄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의 탄생은 그 첫 걸음부터가 순조롭지 않았다. 건국 이후 10년도 채 못 되는 시기에 3차례나 공신 책봉이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보아 개국의 주역을 결정하는 문제가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36) 韓永愚, 『朝鮮王朝의 政治經濟基盤』 韓國史 9, 1974, p.76-86.

있으며 아울러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³⁷⁾

이어서 ‘제 1·2차 王子의 亂’ 등 정치적 마찰을 겪으면서 즉위한 太宗은 ‘조사의난(趙思義亂)’³⁸⁾으로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된다. 이 亂은 太祖 이성계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개국 공신이 배후에 관련되어 太宗 정권의 타도를 목적으로 일으킨 것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太宗은 비록 집권과정에서 많은 政敵을 무단적인 방법으로 처단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집권 후에는 정도전 등 개혁파 유신이 제시한 민본적 정치이념과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위로는 중앙집권체제의 강화, 아래로는 농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유교이념의 확립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다음 세종대에 조선 왕조의 사회와 문화가 그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춘정은 그의 생애 전기에는 역사적 변동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후기에는 전면에서 주도적인 활약을 보인다. 그가 활약했던 시기는 주로 太宗과 世宗의 시기로, 이때는 여말의 혼란했던 사회적 국면을 바로잡고 조선의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왕권강화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여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료제 국가라는 통치의 기본구조를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특히 조선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통치이념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의 불교를 대신하여 유교가 사회전반을 규정하는 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太宗의 抑佛崇儒政策이 실시되었고 동시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유학의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도전(1337~1398)은 <朝鮮經國典>을 修撰하여 새로운 왕조의 모든 제도를 文을 통해 이루었는데 그는 ‘文은 道를 신는 그릇이며 人文을 말하는 것이다. 그 道를 얻으면 詩書禮樂의 가르침이

37) 鄭杜熙, 『朝鮮初期 정치 지배세력 研究』, 일조각, 1983. p.7.

38) 太宗 2年 11月.

天下에 밝혀지고, 三光의 運行을 순조롭게 할 수 있으며, 萬物의 마땅함을 다스릴 수 있으니, 文의 성대함은 여기에서 극에 이른다'39)고 주장하면서 조선건국의 위업과 문학의 위상을 높였다. 이처럼 문학은 주자학을 基調로하여 道를 구현하는 것, 즉 '文以載道'를 근거로 하는 도학적 문학론이 기본적 문학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金宗直(1431~1492)은 '經術이 곧 文章의 근본이다'40)라고 하면서 '載道文學論'을 강조하였고, 權近 또한 '載道之文'을 주장하였다.

이후 徐居正(1420~1488)은 '文은 道를 꿰는 그릇이다(文以貫道)'41)라고 하며 문장은 道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金時習(1435~1493) 역시 '문장이 道에 비해서 높은 것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인들은 '載道'와 '貫道'의 논란을 떠나 '道를 중시하면서도 文을 경시하지 않는다'의 관점에서 공통된 논의 기반을 갖고 있었다. 즉 조선전기에는 대명외교라는 국가의 제반현실과 연관을 갖는 실용적이고 관료적인 詞章文學의 성격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고려중엽 이후로 兩宋·療·金·蒙古 등 강국을 섬겼는데, 자주 文詞로 칭송을 받고 국가의 환난을 풀었으니, 어찌 詞賦를 소홀히 하리요42)

위의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국과의 외교를 이끌어 나갔던 당시에는, 관각문인들에게 있어 사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39) 鄭道傳, 『三峯集』 卷3, <陶隱文集序>, p.342.

“文者 載道之器 言人文也得其道 詩書禮樂之教 明於天下順三光之行 理萬物之宜 文之盛至此極矣”

40) 金宗直, 『佔畢齋集』 卷1, <尹先生祥詩集序>, p.413.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 乃文章之根柢也”

41) 徐居正, 『東文選』 <東文選序>, p.552.

“文者 貫道之器”

42)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高麗中葉以後 事兩宋遼金蒙古強國 屢以文詞見稱 得紓國患 夫豈詞賦而少之哉” p.135.

사장은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이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그들의 책임이었던 것이다. 조동일은 “정도전이 제거되고 권근마저 세상을 떠난 다음에 太宗 정권에서는 독창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지위는 높아도 권력의 외곽에 머물면서 찬양하고 수식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변계량 같은 문인이 있어야만 했다.”⁴³⁾고 하였다. 이로써 변계량이 당시 문형의 자리에서 조선 왕조에 대한 찬양과 수식을 일삼는 사장적인 문학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현과 이색이 잇고 정도전이 크게 발전시킨, 춘정 시대를 대변할 만한 문에 대한 인식은 바로 ‘載道之文’이었다. 특히 文·史·哲을 달리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모두 載道之文 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도 당시의 文治主意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載道的文學觀’을 주장하면서도, 실천적이고 효용적인 문장과 詩賦를 중시하는 사장적인 문학 또한 경시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Ⅲ. 思想과 文學觀

1. 思想

변계량이 활약했던 조선전기의 사상적 특징은 한마디로 ‘抑佛崇儒’라고 할 수 있다. 여말부터 일어난 斥佛運動은 조선 건국초기에 정치부흥과 연관이 강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부국강병과 민본의식, 왕도정치사상과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성리학을 實學, 正學으로 규정하고, 불교를 이단으로써 철저히 배격하였다.

4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p.272.

학자로서 춘정이 지녔던 사상적 바탕은 당시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유학이었다. 춘정의 유학자로서의 기반을 형성한 것은 ‘家風’과 ‘學緣’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가문이 대대로 生員과 進仕를 역임하였고, 고려 말에 이미 三年喪을 시행하였던 점⁴⁴⁾으로 미루어 보아 춘정은 유학과 밀접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춘정은 安珦·白頤正·李齊賢·李穡·鄭夢周·李崇仁·權近으로 이어지는 고려 말 성리학의 주류인 학자들과 사제관계를 맺는데, 이는 “나날이 圃隱, 牧隱, 陶隱, 陽村 등 여러 賢人의 門下에서 노닐어 師友淵源의 바름을 얻었다.”⁴⁵⁾라고 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張志淵의 <朝鮮儒教淵源>의 일부분으로 麗朝儒學의 계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대개 安文成(安裕)은 白上黨(白頤正)·禹易東(禹倬)에게 전하고, 上黨은 益齋(李齊賢)에게 전하고, 益齋는 李牧隱(李穡)에게 전하고, 牧隱은 權陽村(權近)·卞春亭(卞季良)에게 전하니, 이것이 麗朝儒學의 원류가 된다.⁴⁶⁾

특히 정몽주는 변계량이 登第한 文科試驗의 試官⁴⁷⁾으로 변계량과는 座主·門生관계⁴⁸⁾였으며 조선 전기 정치가이자 유학자였던 하륜과도 학문적

44) 『太祖實錄』 卷7, 4年 1月 戊午.

“檢校判中樞院事 卞玉蘭卒…庚申又牧忠州 丁母憂服闋居閑十年…”

45) 鄭陟, 『春亭集』 行狀.

“…日遊圃隱牧隱陶隱陽村諸賢之門 得師友淵源之正”

46)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卷1,

“蓋安文成傳之白上黨禹易東, 上黨傳之李益齋, 益齋傳之李牧隱, 牧隱傳之權陽村近卞春亭季良, 此爲麗朝儒學之源流也.”

47) <高麗史節要> 卷32, 禡王 11年 4月.

“…賜禹洪命等三十三人及第…試官廉國寶鄭夢周等…”

48) 변계량, <춘정집>, 권5, 圃隱先生詩藁序.

“…悲夫 子嘗學於吾先君 而又爲門生 卽知先君者 子矣 序惟子是託焉…”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⁴⁹⁾ 다음은 김시찬이 쓴 『春亭集』 重刊識에 기록된 내용이다.

대체로 선생은 하늘에서 얻은 것이 이미 범인과 다르고 문장도 또한 일찍 성취되어 20세가 되지 않아서 턱의 수염을 뽑듯이 과거에 급제하였다. 또 圃隱, 陶隱을 따르고 陽村 등 여러 선배들에 미치어 은미하고 심오한 성리학을 전수 받아 그 쌓여서 베풀어지고 발한 것이 모두 적중하지 않음이 없었다.⁵⁰⁾

위의 평가는 그의 학문형성의 배경과 그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즉 춘정은 學問的·家系的 연계를 발판으로 고려 말 학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유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춘정의 유교적 사상은 그의 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有感>

國事年來急	나라 일이 근년 들어 급해지니
吾儒道漸迂	儒도가 점차로 현실과 멀어지네
開書還自廢	서책 폼다 다시금 덮어 놓고
舉酒却長吁	술잔 들고 장탄식을 하였다네
殺氣吹東土	살기가 동방에 불어오고 있으니
浮言動萬夫	유언비어 백성들이 동요하네

49) 河崙, <浩亭集>, 卷4, 摭錄.

“加承文府尹卞季良 爲修文殿提學 直藝文館朴熙中 知製教兼春秋館記注官…二人皆崙之門生也.”

50) 金是贊, 『春亭集』 重刊識

“…蓋先生天得既異衆 文章又夙就 未冠 取科第如摘領髭 又從圃, 陶泊陽村諸先輩 得聞性理微奧 其蘊而施而發之者 咸靡不中臆…”

未能忘大義 대의를 잊을 수 없는지라
袍笏日區區 날마다 관복 입고 조회간다⁵¹⁾

위의 시에서는 儒道가 날로 쇠함을 탄식하면서 大義를 추구하려는 유학자로서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감상은 뒤에서 자세히 하기로 한다.

<責友人學琴>

(상략)

琴瑟非所急 거문고 배우는게 급선무 아닌데다
足令心猖狂 그것이 마음까지 방종하게 만든다네
繁我若不暇 자신을 검속하되 한시도 놀지 말고
秉心常靡遑 마음을 붙잡아 경각도 방심 말게
爲奕志鴻鵠 바둑을 배우면서 기러기 잡을 생각
古人言有章 고인이 하신 말씀 조리가 분명하이
將子聆我言 그대가 내 말이 수긍한다면
細細相斟量 하나하나 꼼꼼이 생각해 보게⁵²⁾

위의 시는 거문고를 배우는 벼를 나무라며 학문에 전념하기를 권하는 시이다. 특히 頸聯에서는 “천하의 고수인 혁추(奕秋)에게 바둑을 배우면서 한 사람은 전념으로 배우고 한 사람은 ‘기러기가 오면 잡아야지’ 하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배우면 재주는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고 했던 『孟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도 방심하거나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려고 했던 그의 유학자적인 면모를 보여준

51) 卞季良, 『春亭集』 卷2, <有感>

52) 卞季良, 『春亭集』 卷1, <責友人學琴>

다고 하겠다.

그 밖에도 유학자로서 經世意識과 儒敎에 입각한 자기 수양의 의지를 표출한 시들이 있는데, <內訟辭>⁵³⁾에서는 공자의 仁을 강조하였고, <維天命辭>⁵⁴⁾, <節陶淵明歸去來辭句>⁵⁵⁾, <次金注簿詩韻>⁵⁶⁾등에서는 유교적 天命思想에 입각한 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題朝廷使臣馬麟思親圖詩卷>⁵⁷⁾, <題孝友堂詩卷>⁵⁸⁾에서는 유교적 덕목인 忠과 孝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춘정은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고려시대에 국가적으로 보호되었던 불교는 국가이념으로서의 위치를 박탈당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당시 정도전은 대표적인 排佛論者로서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에는 배불운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 僧侶 및 寺院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과 僧侶의 還俗·充軍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배불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오랫동안 사회저변에 자리 잡고 있던 불교를 대신할 유교적 생활양식이나 의례체제가 정비되지 못하여 불교의 의례체제를 비롯한 생활양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색은 동방의 巨儒이나 大藏經을 읽기를 좋아하여 다른 유자들의 웃음을 샀다. 지금 佛事를 행하지 않는 자는 오직 하룻 한 사람 뿐이니 그 밖의 儒者치고 몰래 佛事를 행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佛氏의 應報設은 모두 드러나지 않는 일로써 明驗이 없으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⁵⁹⁾

53) 卞季良, 『春亭集』 卷1, <內訟辭>

54) 卞季良, 『春亭集』 卷1, <維天命辭>

55) 卞季良, 『春亭集』 卷2, <節陶淵明歸去來辭句>

56) 卞季良, 『春亭集』 卷3, <次金注簿詩韻>

57) 卞季良, 『春亭集』 卷3, <題朝廷使臣馬麟思親圖詩卷>

58) 卞季良, 『春亭集』 卷3, <題孝友堂詩卷>

太宗이 말한 것처럼, 당시 사회는 정책적으로 유교이념의 확대가 추진되었지만 실제 사회의 생활양식은 불교가 지배하고 있었다. 강력한 抑佛策을 추진했던太宗이지만 많은 佛事를 設行하였고⁶⁰⁾ 儒臣들도 여전히 佛事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춘정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 급진적인 개혁을 지양하고 儒佛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춘정의 문집에는 총 422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 이 중 불교와 관련된 시는 총 82수가 있다. 이 중 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는 단 3수⁶¹⁾에 불과하며 불교에 관해 긍정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46수나 되는데, 그 안에는 그가 승려나 불교적 분위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 있다. 그는 “누구보다 선에 든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마음이 본래대로 간직되어 있어서지”⁶²⁾라고 하여 승려에 대한 敬愛의 모습을 서술하기도 하고, “향불은 다 타서 이미 연기도 없어졌는데 깊은 밤 앉아 있으니 선 공부 하는 듯”⁶³⁾이라고 하여 불교적 분위기에 대해 표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조용하니 이곳이 선가라 언제나 스님 불러 합장하곤 했다네”⁶⁴⁾라고 하면서 승려에게 귀의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춘정이 불교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었음을 보여준다. 춘정은 당시 불교관련 문한도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춘정이 뛰어난 문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교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59) <太宗實錄>, 卷5, 3年 3月, 甲辰.

“…李穡東方鉅儒也 然好覽大藏經 爲諸儒所笑 今之 不作佛事者 其惟河崙乎 其他儒者 不無陰作佛事者也 佛氏報應之說 皆在冥冥之中 未有明驗 豈可信哉…”

60) 韓祐勳, 『儒教政治와 佛教』, 一潮閣, 1994, p.60-72.

61) 『春亭集』 卷1 <夜坐有感>, 卷2 <奉次陽村先生詩集>, <題吉處士再詩卷>

62) 『春亭集』 卷1, 登聖居山金神寺

“…最愛安禪子 渠心政自如”

63) 『春亭集』 卷1, 夜坐

“爐香燒盡已無烟 坐到深更似學禪…”

64) 『春亭集』 卷1, 題百華寺望京都

“清虛寂寞是禪家 每引胡僧手共叉…”

또한 춘정은 승려들과의 교류도 활발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山寺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나 승려들과 주고받은 시들을 통해 몸이 불편하거나 시간적으로 한가할 때 조용한 山寺를 찾아가서 禮佛을 드리고 승려들과 교류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춘정이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춘정의 불교인식은 구체적으로 그의 ‘學脈’과 ‘不遇한 生涯’, ‘宗教的 信仰’과 ‘社會安定’의 측면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학맥에 있어서 춘정은 이색, 이승인, 권근과의 交遊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색, 이승인, 권근은 그들의 가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불교와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하여 온건한 자세를 취하였다. 즉 그들은 불교의 세속적 타락을 비판한 것이지, 불교교리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이색의 경우 父親인 李穀과 더불어 독실한 佛教信者였고,⁶⁵⁾ 권근 역시 그러하였다. 춘정도 이들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면서 佛教認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춘정은 관료로서는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 그는 조선이 건국되자 스승과 형을 잃었다. 또한 건강도 좋지 않아 질병에 시달렸으며⁶⁶⁾ 死別 또는 離別로 네 번이나 결혼하여⁶⁷⁾ 유사들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⁶⁸⁾ 더구나 그에게는 嫡子 없

65) <太祖實錄>, 卷2, 元年 12月 壬子條에 太祖는 “李穡爲世大儒 亦且崇佛 此輩讀何書不喜佛若是”라고 하여 李穡의 崇佛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李穡은 또한 指空, 瀨翁 등 名僧의 碑銘을 쓰고, 부친의 뜻에 따라 驪州 神勒寺에서 大藏經을 印刊하여 독실한 불교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牧隱遺藁>, 卷14, 碑·銘. <高麗史> 卷115, 列傳 28, 李穡.)

66) <太祖實錄>, 卷23, 12年 6月 己卯條에 卞季良은 “臣少多病 絕意仕宦 杜門呻吟者 八九年矣.”라고 하였는데, 그는 문집에 실려 있는 총 434수의 시 가운데 약 15%에 달하는 63수에서 身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10여 년의 病苦와 어려서부터의 病歷을 서술하고 있다.

67) 『草溪·密陽卞氏大司譜』에는 府使 總의 딸 安東權氏, 吳氏, 兵馬節制使 彥忠의 딸 密陽朴氏 등 셋만 기록되어 있으나, <太宗實錄> 卷23 12年 6月 己卯와 <太宗實錄>卷48, 12年 4月 癸巳에 李村의 딸이 繼室로 나와 있다.

68) <太宗實錄> 卷48, 12年 4月 癸巳

이 딸만 있어 나라에서 婢妾의 아들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⁶⁹⁾ 경제적으로도 국가의 배려에 의지하는 풍족하지 못한 삶을 영위하는 등⁷⁰⁾ 가정적으로 불행한 일생을 살았다. 춘정의 이러한 불행한 상황은 이색, 권근 등에게 영향을 받은 好佛意識과도 연결되면서 불행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불교에 의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춘정의 <次梁谷韻>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향불이 다 타가자 부처에게 禮 올리고, 日暮에 접어들자 종소리 들려오네”⁷¹⁾

그는 儒臣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에게 경배를 올리고 예를 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춘정이 정치적으로는 儒者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불교에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춘정이 誠寧大君(1405~1418)을 대상으로 쓴 글에서, 성령대군이 부처의 加被를 얻어 極樂往生할 것을 빌고 있는 부분이나, 춘정이 제사를 앞두고는 임금의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일화⁷²⁾에서 그의 깊은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교가 갖지 못한 불교의 종교적 기능에 의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교가 개인의 수양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생각

“...初娶鐵原府使權總之女 去之 又娶吳氏死 又娶李村女數月而去之 又娶都摠制使朴彥忠之女 以有妻娶妻 爲收可所劾竟...”

69) <世宗實錄>, 卷82, 20年 8月, 己巳.

“判府事 卞季良 無嫡子 拜其妻子英壽副司正 令主其祀”

70) <太宗實錄> 卷35, 18年 1月 庚申.

“...司憲府劾禮曹判書卞季良 參判許調 及佐郎僕循等罪 初循移進獻物目于承文院 誤加五味子白斤 季良等自覺 詣承政院上達...至是 憲司以不敬 其職請罪 上問趙末生河演等曰 罪宜不宥 然季良與調 合於禮曹之任 且清寒未受祿 奈何...”

71) 『春亭集』 卷2 <次梁谷韻>

“香殘禮古佛, 日暮聞鳴鍾”

72) <世宗實錄>, 卷111, 28年 3月, 癸巳.

“...昔侍太宗宴 卞季良亦與焉 太宗曰 卿何不食肉 季良色變 終不告情 太宗曰 已知卿欲祭羅漢也...”

할 때, 超人力的인 상황에 대한 기원은 유교가 제시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이므로 유교로서 부족한 종교적 측면을 불교를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 글은 『東文選』에 실려있는 춘정의 <毘盧畫像讚>이라는 글의 일부인데 부처의 靈驗함에 대한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생이나 부처님들 본래부터 둘이 아니고
하물며 법회도 열었으니 감응이야 어떻겠는가
성령이 어찌 괴로운 상념에서만 벗어나리오
틀림없이 청정한 몸으로 나타나리⁷³⁾

한편, 춘정이 생각하는 불교의 세계는 현실의 질서나 다름, 汚辱이 없는 清凉한 세계였다.

擾擾烟塵迹	어지러운 세상속의 티끌 속에 살다가
深深水竹居	깊디깊은 시냇가 대숲에서 사는구나
花含春意嫩	꽃망울은 봄 뜻을 머금어 곱디곱고
山吐月華舒	산은 달을 토해 화사하게 펼쳐지네
自信無拘礙	스스로를 믿어서 구애받지 않으니
誰教學破除	그 누가 과탈을 배우라고 하겠는가
聘師試猛省	대사의 말에 따라 맹렬히 반성하고
舉目是眞如	눈을 들어보니 모두다 眞如로구나 ⁷⁴⁾

현실의 세계가 괴롭고 복잡한데 비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구속되

73) 卞季良, 『東文選』, 卷51, <毘盧畫像讚>.

“...衆生諸佛本無二 何況感應仍昭陳 誠寧豈徒離苦趣 決然而見清淨身”

74) 『春亭集』, 追補, <題照詩卷>

지 않는 불교의 세계는 그에게 이상향이었을 것이다. 삶의 굴곡을 겪은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명멸하는 속세에서 벗어나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스스로의 깨달음 속에서 불변의 보편적 진리인 眞如와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승려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승려의 말에 따라 정진함으로써 비로소 眞如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 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불교의 종교적 기능 외에도 춘정은 불교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춘정이 불교에 대해 일관적인 호의를 가지게 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춘정이 지은 불교관련 저술의 주제는 주로 국왕의 공덕 칭송과 망자의 극락왕생, 그리고 왕실과 국왕의 수복강령이었는데, 그는 부처를 공양하여 복을 비는 것으로써, 왕업의 안정적 계승과 국가의 內憂外患이 막아지기를 기원하였다.⁷⁵⁾ 그에게 왕과 왕실의 안녕은 국가의 안정을 위한 바탕이었기 때문이다.

엎드려 원하니 많은 복을 받음이 해와 달이 항상 솟 듯하고, 억만 년 동안 하늘과 땅처럼 장수하소서. 왕비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태자께서도 길이 길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⁷⁶⁾

그가 유학자임에도 불교관련 저술을 남기고 불교의례의 유지를 주장한 것은 유교의 영역을 벗어난 종교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현실적 필요성의 안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바로 이 사회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춘정은 불교와 유교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보지 않고 조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다음 글에는 佛敎徒로서의 춘정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학자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 있다.

75) 그는 <축수소문>에서 佛力의 加被를 통해 사회안정의 중핵이 되는 국왕의 수복강령을 빌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백성들의 안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76) 卞季良, 『東文選』 卷113, 원주각립사중창경찬법화법도소.

“…伏願既多受祉 若日月之恒昇 於萬斯年 與乾坤而悠久 中壺茂膺於福履 儲宮永享於吉康…”

삼가 바라건대, 三寶가 통찰하시고 諸天이 加護해 주십시오. 의지할 곳 없는 중생을 생각하고 방황하는 小子를 불쌍히 여기시어 禍를 福으로 돌려 길이 『周易』의 悔吝을 제거해 주시며,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려 곧 『詩經』의 이른바 滂沱함을 이루어 온갖 곡식이 성숙되고, 사방에 침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⁷⁷⁾

위의 글에 보이듯이 춘정이 부처의 공덕을 칭송하고 福祿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그 福祿의 구체적 내용을 유교적 가치에 두고 있다는 점은 그의 ‘儒·佛調和的’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춘정은 유불조화를 통한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으며,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사회 안정과 유불 사이의 조화와 포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불조화사상의 성격은 고려 말 사상계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다.

한편, 춘정은 道敎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가 남긴 도교에 관련된 갖가지 <靑詞>⁷⁸⁾와 <祈雨祭文>을 보아도 그가 도교에까지 그 영역을 뻗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그의 독서 범위는 유교의 경전은 물론, 불교서와 도교서를 섭렵했고, 兵陣에까지 정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四書五經은 물론, 당시로서는 최초로 도입된 <性理大典>과 진덕수의 <大學衍義>, 호안국의 <春秋傳>, 주희의 <綱目>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사서인 <三國史記>와 <高麗史>도 읽었으며, 道家 양생서인 李鵬飛의 <三元參贊延壽>와 孫眞人의 <養生>까지도 그의 독서 범위에 있었다. 다음은 춘정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 견해가 잘 드러나 있다.

77) 卞季良, 『東文選』, 卷113, 興天寺祈雨疏.

“…伏願三寶洞知 諸天密護 念群生之無賴 哀小子之不遑 轉禍產祥 永鑄義經之悔吝 作雲下雨 立致周雅之滂沱 百穀用成 四方無悔.”

78) 도교의식 거행 때 드리는 기원문.

옛날 철인들이 도를 닦아 세상을 구제함이 비록 혹 같지 않았다고 해도 그 요점을 추리면, 모두 이 마음을 확충하여 일에 베푸는 것이다. 이는 儒·佛·仙 三教를 살펴보아도 대체로 그렇지 않음이 없다.⁷⁹⁾

李鵬飛의 <三元參贊延壽>와 孫眞人의 <養生> 등의 글이 비록 각각 소견에 따라 논하여 치우치거나 순수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사람에게 적지 않게 유익하니, 모두 상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다.⁸⁰⁾

위의 글을 보더라도 그가 성리학을 고수하면서도 다른 학문이나 종교의 존재의의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불교는 물론, 도교까지도 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별이 궤도를 잃음은 꾸짖음을 알리는 것이 아님이 없고, 태음이 변괴를 보임은 깊고 간절한 근심거리이므로 이에 붉은 정성을 다하여 감히 현묘한 상제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까닭을 깊이 생각하오에 감히 편안함을 구하지 못하오나 결국은 미연에 밝히기는 어려우므로 공경하고 조심함을 더하여 도교의 비법을 고찰, 엄숙히 법단을 높이 모시옵나이다...⁸¹⁾

79) 『春亭集』, 追補

“古之哲人 修道濟也 雖或不同要其歸則皆所以擴充是心而施之於事者也 求之三教蓋莫不然”

80) 『春亭集』 卷 7 <永樂19年月日封事>

“李鵬飛三元參贊延壽書 孫眞人養生等書 雖其議論各隨所見 不無偏駁”

81) 『春亭集』, 卷大10 <陰獨醮青詞>

“列宿失行 莫非譴告 太陰示變。采切虞憂 寔罄禱悰 敢干玄佑... 雖沉思其所以 不敢違寧 竟難燭於未然 祗增惕慮 式稽道籙 恭峙法壇...”

위의 글은 춘정이 지은 <靑詞>의 일부인데, 이러한 도교적 제사의식을 통해 춘정이 도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에 재앙이나 근심거리가 있을 때에는 도교의 의식을 통해 하늘에 제사를 드리며 상제의 가호를 빌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도교적 사상은 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塵世卽蜂房	티끌 세상 벌집과도 같은지라
口眼意政長	눈을 들어 바라보니 생각이 유유하네
武陵如有路	무릉이라 그곳에 길 있는 것 같으니
曾是慕仙鄉	옛날부터 선향을 사모해왔다네 ⁸²⁾

위의 시는 <次稚叔韻>인데, 춘정은 옛날부터 선향을 사모해왔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도교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티끌세상을 벗어나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萬事世間眞夢爾	세상 만사 정말로 꿈 속과 같은지라
一生胸次自悠然	일생동안 그 흥금 저절로 유연했지
下鄰擬共簞瓢樂 ⁸³⁾	소생이 단표의 낙을 같이서 누리고자
爲報心期莫浪傳	속마음을 알리니 누설하지 말아 다오 ⁸⁴⁾

위의 시는 <題鄭勿齋詩卷>인데, 속세의 일은 모두 하룻밤의 꿈과 같아서 허무할 뿐이고, 그저 소박하게 안빈낙도하며 살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

82) 卞季良, 『春亭集』 卷4, <次稚叔韻>

83) 簞瓢樂: 안회(顔回)의 고사이다. 단(簞)은 대그릇이고 표(瓢)는 표주박인데 가난한 생활을 표현한 것이다. 《論語 雍也》

84) 卞季良, 『春亭集』 卷4, <題鄭勿齋詩卷>

을 나타내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은 그가 벼슬에 매인 몸이어서 유학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寄贈江陵李廉使>⁸⁵⁾, <送禹喬之榮州>⁸⁶⁾, <憶京都友人>⁸⁷⁾ 등의 시에서는 신선처럼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생겨 그리운 이를 만나러 가고 싶은 그의 이상적인 바람이 드러나 있다.

요컨대 춘정은 개인적으로는 유교이념에 정통한 유학자였지만 종교적 기원의 대상으로써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유교이념의 확대와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회 안정을 위해 불교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佛敎的 遺習이 남아있던 사회에서 유교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던 조선 초기 儒臣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도교를 포용하여 儒·佛·仙 三敎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相互 會通的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춘정의 儒·佛·道 調和思想은 실제 현실에 바탕을 둔 ‘時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文學觀

앞의 사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학문은 ‘精博’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⁸⁸⁾ 즉 널리 배우고 광범위한 독서를 하되 ‘요점’을 파악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의 독서범위는 유교의 경전은 물론, 불교서와 도교서를 섭렵했고, 兵陣에까지 정통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여러 스승들의 학문

85) 卞季良, 『春亭集』 卷4, <寄贈江陵李廉使>

86) 卞季良, 『春亭集』 卷2, <送禹喬之榮州>

87) 卞季良, 『春亭集』 卷1, <憶京都友人>

88) 權覬, 초간본의 서문[舊序]

“…春亭卞先生天資明敏 學問精博…”

뿐 아니라, 고려 이래의 여러 가지 학문을 한 몸에 집대성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병법에 관해 연구한 글인 <陣說問答>⁸⁹⁾을 보면, 춘정이 명분만을 고집하거나 학문에 차등을 두지 않은 實用的인 사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공자와 맹자의 말을 들어⁹⁰⁾ 병법에 대한 연구가 유자들의 본령이 아님을 지적하는 혹자의 질문에 공자는 위령공이라는 호전적인 군주를 만났기 때문에 진법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고, 맹자는 그 시대가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진법을 혐오하였던 것이지 결코 진법 자체가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孔·孟의 말에서 ‘구세의 정신’을 중시해야지 字句에 집착해서 근본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名보다 實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녔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 춘정은 “학자는 성현의 말씀에 대해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뜻을 쏟아 그 의미를 살펴야지 한 마디 말만 가지고 대뜸 정론이라고 해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여 경전을 해석함에 있어 교조적 해석을 반대하고 성인의 교훈이라도 그 교훈이 나오게 된 배경과 맥락을 살펴 그 의미를 찾아낼 것을 주장했는데, 이를 통해 일정한 규칙이나 틀에서 벗어나 ‘時中’을 추구하고자 했던 학문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춘정의 학문적 태도는 글을 쓰는데도 적용되었다. 흔히 관각파의 학문 경향을 도학파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사장파라고 규정한다. 춘정의 경우는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가 있다.

“... 治平은 성학에 달려 있으니, 문장을 잘 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⁹¹⁾

89) 『春亭集』 卷5. <陣說問答>

90) “衛靈公問陣於孔子，孔子對曰，未之學也” <衛靈公>，論語.

“孟子曰，有人曰，我善爲陣，我善爲陣，天罪也。” <盡心下>，孟子.

91) 『春亭集』 卷1 <夜坐有感>

“... 마땅히 진실한 마음이나 그러야지 화려하게 꾸미고 과장해서 무엇하라”⁹²⁾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는 사장을 경시하고 성학, 즉 유학에 정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학자로서의 춘정은 역시 사장 보다는 유학을 탐구하는 것이 유학자의 바른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글을 쓸 때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춘정 역시 조선 초기의 사대부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인식되었던 ‘載道之文’ 문학관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춘정이 “마땅히 진실한 마음이나 그러야지 화려하게 꾸미고 과장해서 무엇하겠나”라고 한 것에서 춘정 역시 당시의 載道之器的 문학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창작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장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得此字>라는 시에서 “성덕을 노래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다”⁹³⁾라고 한 것이나, <盆池貯寒泉詩并序>에 “신이 한원의 자리에 끼어 있으니, 전하의 성덕을 형용하고 태평을 찬미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입니다.”⁹⁴⁾라고 한 기록에서 춘정은 신하된 도리로서 사장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에는 재도지기적 문학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선건국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춘정은 조선 초기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文科初章의 講經-製述論 是非에서 정도전과는 반대로 강경을 과하고 제술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治平在聖學，焉用詞章爲”

92) 『春亭集』 卷3. <得此字>

“惟應寫肺肝 焉用徒誇靡”

93) 『春亭集』 卷3. <得此字>, “歌頌誠職分”

94) 『春亭集』 卷1. <盆池貯寒泉詩 并序>, “位備翰苑 凡所以形容盛德 貢餘太平者 臣之職也”

“정도전(鄭道傳)이 초장(初場)에서 의의(疑義)의 시험을 없애고 강론(講論)의 시험을 보이도록 한 것은, 대체로 문장 짓는 데만 주력하는 습관을 억제하고 경전을 연구한 선비를 얻으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벌써 시행한 지 오래되었으나 결국 실효는 없고 도리어 폐단만 생겼으니, 오래도록 시행할 만한 일상적인 제도는 아니었습니다.”⁹⁵⁾

이것은 정도전이 사장의 氣習을 억제하려는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⁹⁶⁾ 당시는 명과의 사대적 외교관계 속에서 외교 문서를 능란하게 작성할 수 있는 文章家가 항상 필요하였다. 명의 사신들은 대개 자신들 문화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현란한 문사를 늘어놓거나 詩人流麗의 가법을 논하기 일췌였기 때문에 국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從遊하면서 文章에 화답하고, 나아가 문명을 떨칠 수 있는 인재를 요구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가의 成憲을 만들고 왕의 敎命을 작성하는 등에 있어서도 문사의 존재가 절대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그는 傳旨, 敎書, 表 등 朝鮮 初期 90%에 가까운 국가 문서를 도맡아 작성하면서 실용적 문학관을 배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세대의 성현과 서거정과 같은 관료 문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한편, 춘정의 문학관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글은 그가 지은 <圃隱先生詩稿序>이다.

95) 鄭道傳乃於初場, 罷疑義 試講論, 是蓋抑詞章之習, 而務得窮經之士也, 其意雖善, 行之已久, 竟無實效, 反爲有弊, 非經久可行之常典也. 科擧試製述上書, 문집 卷7.

96)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보성문화사, 1988, p.164.

이조 初期의 과제는 정도전의 사장의 기습을 억제하려는 科制도 卞季良에 이르러서 멸시되었으므로 당시의 科制는 卞氏에 이르러서 갖추어졌을 뿐더러 사장에 중점을 두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형체는 작디작지만 천지에 참여하여 병립(竝立)할 수 있고, 시간은 짧디짧지만 고금을 관통하여 불후(不朽)할 수 있으니, 이는 필시 형체를 의지하지 않아도 서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도(道)를 보는 견해가 매우 정밀하고도 컸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되었다가 사업에 드러난 것들이 모두 순수하여 한결같이 정(正)에서 나왔으며, 대절(大節)에 임해서는 또한 확고하여 그 지조를 빼앗을 수 없는 바가 있었다… 시들이 모두 성정(性情)에서 우리나라와 물리(物理)를 꿰뚫었고, 가끔 마음 속에 얻은 바를 토로하느라 저절로 지은 시도 있었다. 후세에 글을 통해 진의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 시를 소리 높여 읊조리고 자세히 음미해 본다면, 선생이 도체(道體)의 묘리를 꿰뚫어보았다는 것이 한 마디 말과 반쪽의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니, 그러면 어찌 선생의 마음을 시의 밖에서 얻은 자가 아니겠는가.⁹⁷⁾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춘정은 문학을 내부에 흐르는 性情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작가의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밝히는 효용론적 측면에까지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의견과 내용이 충실하여 잘 조화된 상태에 이른 군자의 문은 후학에 의해서 불후의 정신을 갖는다고 하였다.

다음은 權踈가 『春亭集』 序文에서 춘정의 시를 평가한 내용이다.

“그는 시작에 빼어난 재주를 가져 선생이 지은 시는 청아하되

97) 『春亭集』 卷5, <圃隱先生詩稿序>

“形雖甚小 而有可以參天地而並立者焉 時雖甚近 而有可以貫古今而不朽者焉 是必有不依形而立 不隨死而亡者矣…惟其有見於道者 至精而極大 故其存諸心而施諸事業者 莫不粹然一出於正 至於臨大節 亦有確乎其不可奪者矣…皆本之性情 該諸物理 往往有發其胸中之所得 而不能自己者焉 後之人苟有知言者 諷詠而詳味之 則其洞見道體之妙 固已躍如於片言半句之中矣 豈無得先生之心於詩之外者”

苦澁하지 않았으며, 담담하되 천박하지 않았으니 가히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고, 옛날의 빼어난 시인의 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또한 선생은 일찍이 새로운 곡조를 지어 太祖와 太宗의 慈孝를 노래하는 한편 그 시대의 치적을 잘 묘사해 가락에 맞춤으로써 아득한 후세에까지 전하게 했으니, 이 어찌 吟風弄月이나 일삼는 시인이나 墨客들이 미칠 수 있으랴?”⁹⁸⁾

위의 글을 통해 춘정이 시작에 빼어난 재주를 가졌으며 作詩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清淡’한 기풍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현실을 방기하거나 외면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실적인 문학관을 강조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그 시대의 치적을 잘 묘사해 가락에 맞춤으로써 아득한 후세에까지 전하게 했으니’라는 구절을 통해 춘정이 당대의 조선 왕조를 찬양하고 치적을 드러내는 일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기고 힘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춘정은 名보다 實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정한 틀이나 규칙에서 벗어나 당대의 현실에 맞는 해석과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당시에 강조되고 있던 강정보다는 세술을 중시하였는데, 이는 조선전기라는 시대적 현실을 염두에 두고 ‘時中’을 찾고자 했던 그의 현실적 문학관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 춘정은 문학을 내부에 흐르는 性情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밝히는 효용론적 측면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비록 당시의 보편적 문학관이었던 ‘載道之文’의 영향을 받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자신의 직분에 따라 조선왕조를 찬미하고 수식하는 일에 전념하여 사장

98) 權蹏, 初刊本の 序文 [舊序]

“尤長於詩 清而不苦 淡而不淺 可謂升諸公之室堂 而無讓於古人之作者矣…而先生嘗作新調 歌詠兩宮之慈孝 形容一代之治功 被諸律呂 垂之無窮 又豈騷人墨客吟風詠月者之可及也”

적인 관각문학을 꽃피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IV. 卞季良의 詩世界

1. 館閣的 傾向의 詩

대각 혹은 관각이라 함은 당시 문학을 관장하는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을 총칭하는 말로써 이러한 관각에서 하는 문학을 館閣文學이라 한다. 이는 관각문학을 담당하는 관인집단이 사사로이 하는 문학행위를 지칭하는 官人文學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조정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문학 창작을 일컫는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홍문과과 예문관, 성균관 등의 벼슬아치나 그 우두머리격인 대제학을 중심으로 관각문학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왕조 사업을 이룩하기 위해 문학의 장식적인 기능을 중시했으며, 작자 자신의 내면적인 요구에 호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격식에 맞게 잘 다듬어진 표현을 추구했다. 또한 한문학이야말로 지위나 능력을 입증하는 데 독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한시의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들은 문학을 통해서 왕조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왕의 업적이나 존귀함을 나타냄으로써 조선 왕조 건국의 당연함과 조선의 위대함을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들의 고통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왕에게 爲民政治를 할 것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변계량은 조선 전기 20년 동안 대제학을 담당하며 정도전과 권근의 뒤를 이어 관각문학을 발전시킨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시에 나타난 관각적 성격을 고찰하는 일은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문풍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춘정의 시를 조선왕조의 찬양 및 권계, 선정의 의지 및 당부, 유자로서의 관인의식이 드러난 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朝鮮王朝의 讚揚 및 勸誡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문형의 칭호를 들으며 본격적으로 관각문학을 시작하는 인물이 바로 변계량이다. 그는 왕조 초창기에 때맞추어 공적인 산문, 악장을 통해 당시 통치 현실에 대해 확실하고 강도 높은 칭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도 자신의 신왕조 출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현 세상을 마음껏 찬양해 보려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춘정은 당시 사회와 백성들의 밝은 면만을 긍정적으로 부각하고자 했다. 이것은 무엇보다 그가 활동한 시대가 조선왕조 창립에 이어 한창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守成期였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하늘이 創業의 임금을 낼 때에는 守成의 임금을 내는데…
창업할 때에는 진취성이 중요하고 수성할 때에는 안정성이 귀중
하니 시세가 그러한 것입니다.⁹⁹⁾

현 시대를 바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수성기라고 밝힌 그는 왕권강화기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에 한시 창작에 있어 임금을 찬양하고 조선왕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 춘정이 당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전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수많은 백성이 옷이 없고 밥이 없어
혹시라도 굶주리고 추울까 염려하시는 것이고, 신이 염려하는 것
은 또다시 전하께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면하시다 침식을 잃어
혹시라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앓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¹⁰⁰⁾

99) 『春亭集』 卷7, <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

“夫天生創業之君 必生守成之主…創業之時 貴乎進取 守成之時 貴乎安靜 時勢然也”

즉, 民生苦 걱정은 天下 백성의 어버이이신 임금께서 하는 것이고, 자신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걱정하는 도리만 맡은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스스로도 임금이 기분 좋도록 아름답고 찬양적인 문학을 하는 처지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관각문인으로서 시를 통해 당시 사회를 미화하고 찬양함으로써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한편, 왕이나 관료들에게 민생의 중요성을 권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勤政殿>

煌煌金殿照層巒	찬란하게 금빛 대궐 첩첩 산을 비추는데
琪樹葱籠景氣閒	수목이 푸르러서 경관이 여유롭네
閭闔九天開日月	구천의 문이 열려 일월 모습 드러나자
衣冠五夜集鳳鸞	의관차려 새벽녘에 봉황 난새 다 모인듯
衆心離合分毫忽	인심은 작은 일로 향배가 달라지니
百代興衰可鑑觀	역대의 흥망성쇠 거울삼아 살펴야지
裁決萬機猶未罷	정무 처리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日斜花影上欄干	해 기울자 꽃 그림자 난간으로 올라왔네 ¹⁰¹⁾

위 시는 조선왕조 일대를 통해 임금이 집무하고 조회를 보았던 勤政殿의 모습과 그 곳에서 행해지는 君臣의 의례가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는 춘정의 대표적인 관각 시이다. 首聯에서는 鎭山인 白岳을 배경으로 장대하고 아름답게 솟아 있는 궁궐의 모습과 그 부근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으며, 頷聯은 열리는 궁궐 문으로 새벽 조회를 보러 모여드는 만조백관의 출근 모습이 나타나 있다. 頸聯은 詩想이 일변하여 治國을 위한 경계를

100) 『春亭集』 卷7, <永樂十七年七月日封事>.

“殿下所憂者 蓋慮億兆之人 無衣無食而或至於飢寒也 臣之所慮者 又恐殿下過於憂勤 失寐忘飧而或至於違豫也”

101) 卞季良, 『春亭集』 卷4, <勤政殿>

설과하는데, 역대의 흥망성쇠를 귀감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며 관료들에게 오직 백성을 위해 일하라는 권계를 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열심히 정무 보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르는 상황을 뜻 그림자라는 화려한 이미지로 해 지는 저녁 무렵의 궁궐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왕조 일대를 통해 勤政殿은 임금의 집무하고 조회하는 正殿이었다. 그만큼 이 전각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려하게 지어지고 만세토록 보존되어야 마땅한 상징물이다. 頷聯의 수사 기교는 이 점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하늘과 군주’라는 전통적인 대응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 알려진 대로 ‘闔闔’은 당초 ‘하늘의 문(天門)’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張衡이 <西京賦>에서 이를 宮門의 비유로 활용한 이후 많은 관각풍 시에서 으레 闔闔은 궁문의 비유로 고정된 것이다.

이 연에서 闔闔은 그 뒤에 나오는 九天 및 日月과 밀접히 결합되어 天上의 이미지를 표상하는데, 즉 새벽이 되어 환하게 열리는 하늘문은 곧 새벽을 맞아 조회를 하기 위해 활짝 열리는 대궐문을 비유하는 것이다. 또한 日月은 임금의 聰明과 은총을, 九天은 높직이 솟은 전각의 장엄한 형상이라는 은유를 내포한다.

이어서 頸聯에서는 경계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비록 이 시가 장려한 궁궐과 정치적 행사를 찬미한 시이지만 단순히 찬미의 어구와 수식의 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관료들에게 훈계함으로써 민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찬미와 규계라는 『詩經』 이래의 전통적인 작시법을 따른 것이라 하겠다.

<題樂天亭>

樂天亭上又清秋

낙천정에 올라보니 맑은 가을 또 왔는데

地載明君佳氣浮	성군이 계신 곳에 가기가 떠오르네
疎雨白鷗麻浦曲	부슬비 속 백구는 마포 어귀 날고
落霞孤鶩漢山頭	지는 노을 기러기는 한산 위로 날아가네
仁風浩蕩草從偃	호탕한 자애 기풍 사람들이 휩쓸리고
聖澤瀾漫水共流	뻗어 가는 성상 은택 홍수처럼 질펀하지
宵旰餘閒觀物象	정사 보고 난 여가에 사물을 감상하니
人間仙境更何求	인간의 그 선경을 어디서 또 구하랴 ¹⁰²⁾

이 시에 소개된 樂天亭은 조선 태종의 離宮이자 한강의 경승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 유래와 풍광에 대해서는 변계량이 왕명을 받들어 작성한 <樂天亭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재위 19년 가을 8월 세종에게 讓位한 후 농한기에 東郊에 出遊했다가 한강 가 풍광이 수려한 구릉을 발견하고 그 동북쪽에 정자를 세울 것을 명했다고 한다. 정자가 이룩된 후 태종은 좌의정 朴崑을 시켜 정자의 이름을 짓게 했고 변계량으로 하여금 건축의 始末을 기록한 記文을 짓게 하였다. 이 글을 통해 변계량은 과거 고려 신하로서의 부담을 완전히 내던지고 완벽한 조선 신하로서의 충성을 보여준다. 즉 고려왕조는 조선에 의해 타도되어야 마땅한 勝國으로 치부하며 이성계의 “倡義開國”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뒤 태종의 정권 장악에 대한 그의 관점도 지극히 긍정적임은 물론이다. 특히 頸聯에서 풀로 비유된 백성들이 바람으로 비유된 군주의 仁德을 따라 감화될 것이라는 구절에서, 그 안에 군주의 통치와 민중의 복속이라는 정치적 구도가 내포되어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102) 卞季良, 『春亭集』 卷3, <題樂天亭>

<早春呈中慮>

興意歸南面	백성들 마음이 대궐로 모아지니
王春渾一家	왕조의 봄기운 한 집안 통일되듯
乾坤凝淑氣	하늘과 땅에 맑은 기운 뭉치니
草樹自年華	풀과 나무 저절로 번영하네 ¹⁰³⁾

위의 시 역시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져 조선이 개국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봄에 만물이 화창해지듯이 현재 세상도 백성들이 통치에 잘 부응하며 번영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朝鮮開國을 ‘天命’으로 보고 조선왕조를 찬양하는 당시 관료로서의 세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冬至日早朝>

金碧輝輝映道周	길거리는 울긋불긋 찬란하게 빛나는데
九門寒漏促更籌	구중궁궐 자격루는 시간을 재촉하네
鷄人報曉開天闕	계인이 새벽 알려 대궐문이 열리자
鸞鷲盈庭拜冕旒	궁궐뜨락 신하들이 임금님께 절하엿네
雲近御牀分五色	구름은 용상 위에 오색으로 분리되고
山呼聖壽獻千秋	천천세를 외치며 장수를 축원했지
佳辰況是陽初動	아름다운 계절에다 양기가 태동하니
蹈舞歌時敢自休	춤추며 태평가로 스스로 즐기었지 ¹⁰⁴⁾

위의 시는 동짓날 행해지는 궁중행사를 묘사한 것인데, 마치 儀軌의 圖鑑을 보듯이 동짓날 아침 만조백관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하례하는 광

103) 卞季良, 『春亭集』 卷1, <早春呈中慮>
 104) 卞季良, 『春亭集』 卷2, <冬至日早朝>.

경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간 순서에 맞추어 早朝의 모습을 정태적,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새벽의 밝고 영롱한 햇살을 황금과 벽옥 빛이라는 시각 이미지로, 시간의 경과를 떨어지는 물 시계 소리라는 청각 이미지로 표현해 감각적 이미지가 잘 조화된 가운데 고즈넉한 새벽의 대궐을 시간적·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頷聯에서는 앞 연의 靜的인 분위기가 갑자기 動的이고 활기찬 분위기로 일변한다. 새벽을 알리는 鷄人의 고함 소리와 그에 맞추어 열리는 대궐문들, 색색의 관복을 착용하고 줄지어 대궐 뜰로 입장해 임금께 절 올리는 신하들, 여기서 청각과 시각은 앞 연과 대조적으로 떠들썩하고 현란하게 제시되고 있다. 頸聯에서도 頷聯의 톤을 계승하되 보다 더 화려하고 동적인 광경들이 나타난다. 祥瑞를 상징하는 오색구름은 모든 관각풍 시들이 즐겨 채택하는 색채 이미지로 궁궐의 艷麗와 활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한 활기는 백관들이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입을 모아 목청껏 부르는 만세 소리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춘정은 이렇듯 장엄한 궁중행사를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왕과 조선왕조에 대한 찬양은 물론 백성들로 하여금 외경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다.

<盆池貯寒泉詩>

半畝盆池貯冷泉	반묘 되는 분지에 차가운 샘물 갈무리하니
盈科流水竟浮天	구덩이를 넘치는 물 끝내 하늘 띄우네
淵淵有本深三尺	깊고 깊은 바탕 있어 그 깊이가 삼척이고
浩浩無涯納百川	넓고 넓어 가이없이 온갖 시내로 들어가네
東作西成資灌溉	씨 뿌리고 거두는 것은 물대는 것에 의지하고
紅香綠影媚清漣	붉은 향기 푸른 그림자 맑은 물결 아름답네

病臣偏沐恩波裏
舞蹈歌詩祝萬年

병든 몸 은혜로운 물결에 목욕하니
춤추고 뛰며 시 읊어서 만세수 빌고있네¹⁰⁵⁾

위의 시는 임금의 명을 받들어 제작된 應製詩 가운데 하나이다. 應製詩란 전통적으로 동양 사회에서 군주의 詔命을 받들어 시나 문을 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관각풍의 시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관료들이 그러하듯이 춘정도 여러 편의 응제시를 통해 임금의 덕망을 기리고 그 은총을 온 백성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 화려하고도 장중한 수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首聯에서는 분지에 샘물을 저장한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샘물이 구덩이를 채우고 넘쳐흘러 하늘을 띄운다고 하였다. 여기서 연못에 샘물을 저장하는 것은 마치 사육에 빠지지 않고 心德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의 덕화가 가득차서 흘러넘침을 구덩이의 물이 차고 넘쳐흐르는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頷聯, 頸聯에서는 깊고 넓은 그 샘물이 온갖 시내로 흘러들어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을 때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 효과가 만물을 화육하는데 이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붉은 향기와 푸른 그림자는 천하 만물의 모습을 맑은 연못 속에 비치는 하늘과 태양, 숲, 대, 꽃, 풀들에 빚대어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尾聯에서는 부족한 자신도 그 물결 즉, 임금의 은총을 입어 그 은혜를 찬양한다는 내용으로 맺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시는 왕의 德으로 인해 만물이 잘 다스려져 그 효험이 천지에까지 미친다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應製詩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得此字>

105) 卞季良, 『春亭集』 卷1, <盆池貯寒泉詩>

大哉維乾元 위대하고 위대한 하늘의 도여
 生物自不已 만물을 생성함이 쉼새 없구나
 於皇我聖神 아아아 우리네 성신한 대왕님
 至仁治遐邇 지극한 인 원근이 다 흡족하네
 (중략)

每當臨政暇 정사를 처리하고 여가 날 때는
 詩書究源委 시서의 근본과 말단 연구했지
 豈惟日孜孜 낮에만 부지런히 했을 뿐인가
 夜對盡百紙 야간에도 수백 장을 강론하였네
 (중략)

願言法且戒 원하건대 본받고 또 경계하여
 愼終一如始 끝까지 처음처럼 신중을 기해
 父臨億萬年 억만년 어버이로 군림하사
 保我群赤子 우리의 적자들을 보호하소서¹⁰⁶⁾

위의 시는 태종의 사적을 찬미한 120句의 長詩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修辭로 가득한 이러한 시는 牧隱·圃隱의 시는 물론이고 三峯이나 陽村의 시에서도 예를 찾기 어렵다. 춘정 후기 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찬미와 송축의 시들은 여말 문인들의 한시 경향과 또렷이 구별되는 조선전기 시의 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즉 궁정을 중심으로 왕정을 분석하고 지배층 사이의 교제를 위해 창작되는 궁정문학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작품은 이러한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시의 앞부분에서는 태종의 공로와 사적을 나열하며 칭송하고 있으며 중간부분에서는 태종의 근면함과 명철함을 찬미하며 태평한 시대를 맞이

106) 卞季良, 『春亭集』 卷3, <得此字>

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부분에서는 왕에게 방종을 경계하고 초심을 유지하여 이 나라를 오래도록 잘 이끌어나가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춘정의 시는 단순히 찬미와 칭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계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춘정은 신왕조 창업에 이은 守成과 왕권 강화기의 관료문인의 대표로서 문학의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고 모두 밝은 면의 긍정적 부각에만 집중해야 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즉 그는 당시 관각 문신으로서 여러 수사적 장치와 어법 및 시어를 차용하고 그것들을 잘 배열하여 많은 관각풍의 시들을 남기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 관각풍의 시는 정확한 典故를 바탕으로 하고, 다양한 수사적 장치를 개발함은 물론, 時空에 걸쳐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탄탄한 구성을 이룩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임을 이해할 수 있다. 변계량이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 받은 것은 관각문신으로서의 이러한 능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군주에 대한 찬미 외에도 시의 후반부에 군주에 대한 경계를 적절히 삽입함으로써 『詩經』 이래 전통적으로 묵수되어온 美刺의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善政에의 意志 및 當付

처음 조선왕조가 건국되자, 춘정은 태조의 부름에 병을 칭탁하여 출사하지 않고 은거를 택한다. 그러나 차츰 은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공명 의식과 양심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은거했던 절친한 벗인 李陽谷이 조선왕조의 부름을 받아 그의 곁을 떠난 것¹⁰⁷⁾과 부친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삶과 죽음, 자기실현의 문제를 깊이

사색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춘정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父喪을 마치고 정계에 나아간 사실을 통해 이를 추측해볼 수 있다. 춘정이 벼슬에 나아간 후에 지은 다음의 시에서 춘정의 삶의 자세에 대한 지향을 엿볼 수 있다.

<莘野行>

有莘之野有一老 ¹⁰⁸⁾	신야에 어느 한 늙은이가 있었는데
身荷耒耜於焉藏	농사를 지으면서 은거하고 있었지
幡然動心三聘餘	세 차례 초빙하자 마음을 바꿔 먹고
欲令四海如虞唐	사해를 당우처럼 만들려고 하였었지
五就桀兮非吾君	다섯 번 걸왕 만나고 군왕으로 안 여기니
虐焰閃鑠燒乾坤	학정의 불꽃이 천지 속에 타올라서지
哀哀烝民沸煎熬	불쌍한 백성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들
奚啻炎火玉石焚	불에 타는 옥석도 비유가 안 되었네
愍惻若已推納溝	자신이 수렁으로 밀어넣듯 민망하여
相湯謀訖天之誅	탕왕을 도와서 하늘 대신 처벌하려했지
能傾東海手注之	동해를 끌어다가 물 뿌려 구제하니
引領萬口爭權呼	백성들이 쳐다보고 앞 다투어 환호했지
終輔幼沖致仁義 ¹⁰⁹⁾	결국에는 어린 임금 보좌하여 성군 되니
平生自任以天地	평생 동안 천지를 책임지고 살았다네
雲行杳邈百世下	구름처럼 흘러가 까마득한 후세에도
豈無儒者志其志	그런 뜻을 가진 선비 어찌하여 없겠는가 ¹¹⁰⁾

107) <寄陽谷> 2수, “王命陽谷 以紀以綱 秉國之平 不顯其光”

108) 有莘之野有一老 : 은(殷) 나라 탕(湯) 임금의 재상이윤(伊尹)이다.

109) 終輔幼沖致仁義 : 탕 임금이 죽은 뒤에 그의 손자 태갑(太甲)이 탕 임금의 제도를 파괴하자, 이윤이 태갑 동궁(桐宮)으로 축출하였다가 3년이 지나 개과천선하니 맞아들여 복위시키고 고향으로 물러갔다. 《書經 太甲》

110) 卞季良, 『春亭集』 卷4, <莘野行>

위의 시에서 신야에 은거했다가 당에 의해 등용되어 夏를 무너뜨리고 殷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윤의 삶에 대한 서술이 춘정의 정치적 이력을 떠올리게 한다. 시의 끝부분에 ‘까마득한 후세에도 그런 뜻을 가진 선비 어찌하여 없겠는가’라는 시구에서 이윤과 같은 신하가 탕왕을 도와준 것처럼 자신도 그 역할을 하고 싶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신도 이윤 같은 재상의 능력이 있음을 비견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벼슬에의 의지, 곧 올바른 신하가 되어 임금의 도와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춘정 자신이 조선의 관리로 출사를 하게 된 사상적 신념을 밝히는 글이기도 하다. 특히 이윤이 당시 학정의 불꽃에서 고통 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한 인물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춘정은 동시대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시 중에는 임금을 도와 백성들을 구제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를 피력한 시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題許漢城詩卷>

(상략)

所願唯濟生	소원은 오로지 창생을 구제하여
善治寒與熱	오한과 발열을 잘 치료하는 것뿐이지
收藥盡百草	약재로 온갖 초목 남김없이 채취하여
下灸洞諸穴	뜸질을 시작해 혈맥을 뚫었었지
醫了一世人	한 시대의 사람을 모두 다 치료한 뒤
共咏漁磯月	나와 함께 나루터 달 읊어 보세 ¹¹¹⁾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춘정은 허한성이 오로지 창생을 구제하는데

111) 卞季良, 『春亭集』 卷3, <題許漢城詩卷>

힘을 쓰는 사람임을 읊으면서 자신의 소원도 허한성과 함께 백성들을 아
 품과 고통에서 구제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 그것이 허한성과 자신이 맡은 임무이며, 이러한 책임을 다 한
 후에야 비로소 자연으로 돌아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西京使相容軒李公惠石銚以詩答之>

縱然婦女笑形模	부녀자들 모양 보고 웃을는지 모르지만
見用還將鼎鼐俱	밥술이나 국술이나 똑같이 쓰고 있지
莫謂小齋徒煮茗	서재에서 차만을 달인다고 하지 말게
調羹直欲獻天廚	국을 끓여 임금님께 드리고 싶었다네

香茶活火煮山泉	향차를 산 속 샘물 불 지펴 달여 놓으니
一椀才傾骨欲仙	한 잔 겨우 마셨는데 선골이 되려 하네
安得家家分此味	어찌하면 집집마다 이 맛을 분배하여
坐令天下洗葷羶	앉아서 천하의 비린내를 씻어 내지 ¹¹²⁾

위의 시는 돌 냄비를 보내준 친구 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
 내면서 그 돌 냄비의 쓰임새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읊어낸 시 3, 4수이다.
 친구가 준 돌 냄비에 다려먹는 향기로운 차는 한 잔만 마셔도 신선이 되
 는 듯 하다면서 그 고마움을 친구에서 임금, 백성으로 시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연의 ‘집집마다 이 맛을 분배하여 천하의 비린내를 씻
 어내고자 한다’는 구절에서 생활에 지친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의 용기를 주고자 하는 정치가로서의 포부를 읽을 수 있다.

112) 卞季良, 『春亭集』 卷4, <西京使相容軒李公惠石銚以詩答之>

홀륭한 임금을 만드는 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스스로 인식한
 춘정은 백성에 대한 애민의식을 드러낸다. 춘정은 무더위와 가뭄 속에서
 고생하는 농부들의 고통을 발견하고, 농사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대
 변하는 시를 짓기도 한다.

<苦熱行>

日出東北飛天衢	동북에서 해가 떠서 중천을 날아가니
朱光萬里烘爐中	붉은 빛 만 리 뿔어 이글대는 화로 같네
海波欲渴山翠乾	바닷물 다 마르고 푸른 산 말라 가니
飛鳥翅垂迷西東	나는 새 날개 처져 갈길을 잃었구나
平人執熱亦何怪	서민들 더위고생 이상할 게 없지만
不見南畝鋤禾翁	들판에 논매는 늙은이 안 보이네
終年勞力竟食人	일 년 내내 노력해도 남의 의식 채워주니
先王所以思農功	선왕께서 이 때문에 농사를 중시했나? ¹¹³⁾

농민시에 가까운 이 시는 평생토록 농사를 짓지만 끝내 다른 사람만
 배부르게 하는 농민들의 사정을 대변하고 동정하는 시이다. 首聯과 頷聯
 에서는 더위를 ‘화로’에 비유하거나 ‘바닷물도 마르고 산의 푸르름도 말
 랐다’, ‘나는 새도 날개짓 할 힘을 잃었다’라는 비유로 농민들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詩經』을 인용하여¹¹⁴⁾ 더운 물건 집는 사람
 들 차가운 물에 손 씻는 것 당연하지만 밭의 농부들은 그렇지 못하고 혹
 서에 고생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이어서 尾聯에서는 그런 더위 속에서
 고통스럽게 농사를 지음에도 잘살기는 커녕 도리어 다른 사람의 배만 채

113) 卞季良, 『春亭集』 卷2, <苦熱行>

114) 詩經, 大雅 桑柔.
 “誰能執熱, 逝不以濯”

우는 농부들의 어려운 사정을 안타까운 듯 그대로 그려놓고 있다.

다음 시에서 춘정이 서민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勤政殿>

帝心固靡常	상제 마음 진실로 일정하지 않지만
輿意亦難測	백성의도 또한 측정 어렵습다네
匹夫恐失所	서민들 생업을 잃을까 염려되고
庶僚或曠職	관료들은 혹시 직무 유기했나 ¹¹⁵⁾

위 시는 <勤政殿>의 일부인데 춘정은 나라의 근간인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도울 것을 걱정하고 있다. 즉 변계량은 서민들을 하늘의 뜻을 실행하는 전달자로 인식하고 있다. 백성의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은 하늘의 의도처럼 백성들의 향배가 일정하지 않아서 임금이나 관료들이 조금이라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심은 떠나버린다고 본 것이다. 즉 춘정은 민심이 바로 천심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물론 다른 관료들이나 임금에게도 선한 길을 걸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듯 춘정은 자신이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힘쓰는 것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기를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권에 쓰는 글이나 벼슬을 제수 받은 이를 송별하면서 쓴 글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선정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題趙宰相詩卷>

115) 卞季良, 『春亭集』 卷4, <勤政殿>

忽忽歲云暮	어느새 세월 흘러 세모 맞으니
北風吹我衣	북풍이 내 옷깃을 불어 스치네
常抱感時恨	평소에 무상한 세월을 한탄했는데
復此送君歸	또다시 돌아가는 그대 송별하네
君歸向何許	그대는 어디로 돌아가려 하는가
縹渺完山陲	아득한 완산의 고을이겠지
完山古百濟	완산은 옛날에 백제의 땅이니
保釐須英奇	기발한 영재가 있어야 다스리지
矧今旱蝗餘	더구나 지금은 한재 겪으니
民生良可悲	정말로 백성들 애처롭기 그지없지
所以公拜命	조공이 사은숙배하고 나서
千里馳征驂	말에 올라 천리 길 달려 갈거네
往哉展心腹	가거든 가슴속에 쌓인 것 펼쳐
經理愼所宜	신중하게 경영하고 다스리게나
分食濟民渴	식량을 분배하여 기근 구제하고
發藥醫瘡痍	약재를 풀어서 질병을 고치게
下對蒼生望	아래로는 백성들 소망에 부응하고
上報明主知	위로는 명주의 인정에 보답하게
珍重復珍重	신체를 진중히 보존하여
慰我長相思	끝없이 그리는 내맘 위안해주게 ¹¹⁶⁾

위의 시는 조재상의 시권에 쓴 시이다. 한재를 겪어 상황이 좋지 않은 완산으로 부임 받아 가는 조재상을 송별하면서 어려울 때 쓰이는 인재로서 관리의 소임을 다하고 선정을 펼칠 것을 당부하며 격려하고 있다. 구

116) 卞季良, 『春亭集』 卷4, <題趙宰相詩卷>

구절절 백성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 그가 평소에 민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부임지로 떠나는 이를 송별하며 시를 지어 선정을 당부하는 것은 변계량이 문한으로서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동시에 임금의 명을 대신했던 조정 관료로서의 위치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 외에 <送李仲平出按全羅>¹¹⁷⁾, <送李三宰奉使金陵>¹¹⁸⁾, <送雨亭相國巡問西都>¹¹⁹⁾, <送金府尹尹于完山兼節制>¹²⁰⁾, <送栗監生>¹²¹⁾ 등의 시에서도 떠나는 이를 송별하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선정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유학자로서의 춘정이 지니고 있었던 실천적 충효사상과 애민의식의 발로였다고 하겠다.

3) 儒者로서의 官人意識

자신이 쌓은 학문과 수양을 바탕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보살피며 道를 행하는 것은 유학자의 인생관에 있어서 하나의 전형적인 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춘정은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出處’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시로써 표현하였다. 특히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수양함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儒道를 회복하고 시대를 개혁시키고자 하는 희망과 포부를 버리지 않았다.

<有感>

-
- 117) 卞季良, 『春亭集』 卷2, <送李仲平出按全羅>
 118) 卞季良, 『春亭集』 卷2, <送李三宰奉使金陵>
 119) 卞季良, 『春亭集』 卷3, <送雨亭相國巡問西都>
 120) 卞季良, 『春亭集』 卷3, <送金府尹尹于完山兼節制>
 121) 卞季良, 『春亭集』 卷4, <送栗監生>

國事年來急	나라 일이 근년 들어 급해지니
吾儒道漸迂	儒도가 점차로 현실과 멀어지네
開書還自廢	서책 폼다 다시금 덮어 놓고
舉酒却長吁	술잔 들고 장탄식을 하였다네
殺氣吹東土	살기가 동방에 불어오고 있으니
浮言動萬夫	유언비어 백성들이 동요하네
未能忘大義	대의를 잊을 수 없는지라
袍笏日區區	날마다 관복 입고 조회간다 ¹²²⁾

고려 조정에 출사했던 청년 시절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시는 시인의 현실인식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당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우왕, 창왕의 폐위와 최영장군의 죽음 등 일련의 정변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벼슬길에 나선 신하로서의 大義와 현실적 상황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불안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춘정은 ‘儒道가 점차로 현실과 멀어지네’ 라는 首聯의 진술을 통해 儒家의 정치 이상이 폐기되어 가는 쇠진한 시대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 頷聯에서는 이러한 시대에 처한 자신의 절망감을 전하고 있다. 頸聯에서 춘정은 이러한 현실을 살기가 온 땅을 뒤덮고 빈 말들이 떠돌아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 사라진 암울한 시대로 그리고 있으며, 尾聯에서는 결국 자신을 정치적 소신을 펴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로 묘사하고 있다. 암담한 시대현실은 정치적 이념의 실현을 어렵게 하여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는 다음 시에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醉時謠>

122) 卞季良, 『春亭集』 卷2, <有感>

羲農邈矣文武衰
 天下汲汲誰能持
 宣父韞玉不見售
 鄒叟遊說終無施
 搖中開口揚妙音
 空有遺響留至今
 我作狂歌叫孔孟
 吾儒萬古同此心

희농이 멀어지고 문무 정책 쇠해지니
 위태로운 천하를 그 누가 부지하나
 공자께서 옥 품고도 팔지를 못하였고
 맹자께서 유세해도 시행하지 못하였지
 흔들면 입 열리어 묘한 소리 나는데
 부질없이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 있네
 미친 노래 지어 불러 공맹 찾아 부르짖으니
 우리 유가 만고토록 이 심정 똑같다네¹²³⁾

춘정은 유자로서 공자와 맹자를 배우고 또 본받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적 뜻도 펼치고자 했었다. 미친 듯이 공자와 맹자를 부른다는 말 속에서 여러 현실 상황이 유가의 도를 펼칠 수 없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孔孟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 춘정은 확고한 유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자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수양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內訟辭>

惟孟氏之垂訓兮
 幼學所以壯行
 正其義不謀利兮
 固嘉言之孔彰
 仰先訓之不我欺兮
 羌佩服以不忘

오로지 맹자가 남기신 교훈에
 실행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하였네
 이익은 안 따지고 의리만 행한다니
 그래서 가언으로 드러난 것이었지
 선현의 가르침 속이지 않았으니
 마음 속에 새기어 잊지를 앓겠도다

123) 卞季良, 『春亭集』 卷2, <醉時譚>

(중략)

忠君與澤民兮	충성하고 선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惟職分之當爲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네
學必優而登仕兮	학문이 풍부해야 벼슬하는 것이니
須惜日以孜孜	하루를 아끼면서 부지런히 닦아야지
懲此志之不自兮	이 뜻을 밝히지 않은 것을 징계하여
斯自訟以成章	이렇게 반성하며 글로 지어 보았다네
慨余學之未優兮	아쉽게도 내 학문이 흠족치 않기에
獨三歎而內違	혼자서 탄식하며 내심으로 당황했지
尙年富而力彊兮	그렇지만 아직도 나이 젊고 힘 굳세니
庶來者之可望	앞으로 가망성이 있다고 기대하네 ¹²⁴⁾

위 시는 춘정의 사상적, 학문적, 정치적 뜻을 비교적 명확히 밝히고 있는 작품인데 자신을 훈계하는 글의 형식인 ‘箴’의 형태를 빌려 표현하였다. 오직 성현의 말씀에 따라 ‘仁’을 따르고자 했던 자신의 다짐을 떠올리며 그렇지 못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그 날을 위해 하루를 아끼고 학문을 부지런히 닦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큰 도를 얻어 천하에 시행하고자 하는 변계량의 포부까지 읽어 낼 수 있다.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춘정은 자기 수양의 이념적 기반이 철저히 유교에 있음을 밝히는 한편 유교이념에 입각한 관인으로서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시로써 나타내었다.

<感興>

124) 卞季良, 『春亭集』 卷1, <內訟辭>

吾聞神仙人	듣기에 신선이라 하는 것은
高步餐紫霞	고상하게 혼자서 붉은 노을 먹으면서
逍遙壺中天	별천지에 한가롭게 노닐면서
流光任蹉跎	세월 가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고
我生異於是	내 삶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
撫琴良歎嗟	거문고 만지면서 탄식을 한다네
充腸用禾稼	뱃속은 농사 지어 채울 수 있고
煖身以絲麻	몸에는 옷 걸쳐야 따뜻한 것을
但願崇令德	오로지 선덕 높이 쌓길 바랄 뿐
壽夭心靡他	수명의 장단에는 관심 없다네 ¹²⁵⁾

자신은 신선이 될 수 없는 인간이기에 농사를 지어 곡식으로 배를 채워야 하고, 길쌈으로 옷을 지어 추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최선의 길은 덕을 높이는 자기 수양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구에서는 『孟子』의 “장수나 단명을 의심하지 않고 덕을 닦아 기다리는 것이天命을 세우는 것이다”¹²⁶⁾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마무리 지었는데, 요컨대 덕을 닦음으로써 천명을 거스르지 않는 “立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偶吟>

萬物元來只一身	만물은 원래부터 내한몸서 출발하니
前脩多是貴爲仁	선배들은 인 실천을 귀중하게 여기었지
却從箇裏須知本	사물 따라 근본을 반드시 제대로 알아
先自齊家乃及人	제가부터 먼저 하고 남에게 미쳐야지 ¹²⁷⁾

125) 卞季良, 『春亭集』 卷1, <感興>

126) 『孟子』 「盡心上」

“夭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

127) 卞季良, 『春亭集』 卷2, <偶吟>

이 시는 유학을 공부하는 관인으로서의 춘정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孔子의 말과 같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일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¹²⁸⁾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신이 가장 근본이 됨을 闡明하고 있다.

<次獨谷詩韻送申都觀察使>

力學早能專爲己	일찍이 자신 위한 학문에 힘썼는데
莅官寧復要垂聲	벼슬한들 명성을 내려고 하겠는가
坦施實惠先無告	무고한 이 제일 먼저 혜택을 줘야 하니
知有何人不用情	그 누가 소홀히 하는지 알아야지 ¹²⁹⁾

위 시는 관찰사 신개에게 보내는 시 중의 일부이다. 자신을 위한 학문, 즉 수신을 통해 이룬 입신의 목적은 명성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춘정의 관료적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다음에 인용한 <次鄭宗誠韻>에는 관료로서 춘정의 성찰과 통찰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次鄭宗誠韻>

縱然人欲有千蹊	비록 인욕 수없이 여러 가지 있지만
聖教眞同障水堤	성인의 가르침은 물 막는 둑 같아서
豈獨一時蒙澤利	어떻게 한 때에만 혜택을 입겠는가
且令萬世破昏迷	만세까지 혼미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128) 『大學』, “修身齊家治國平天下”

129) 卞季良, 『春亭集』 卷4, <次獨谷詩韻送申都觀察使>

莫教茆草塞荒蹊	띠풀이 묵은 길을 뒤덮지 않게 하고
止水須憑累石堤	흐른 물 가두려면 돌제방을 쌓아야지
存養苟知臻極處	존양이 고도에 이른 것을 알려면
寂然直使鬼神迷	고요히 간직하여 귀신도 몰라야지 ¹³⁰⁾

첫 번째 시에서는 성인의 가르침, 즉 유교 경전의 가르침은 수많은 인욕을 막아준다고 하였다. 이는 孔子가 말한 ‘克己復禮’의 가르침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이를 따르면 만세까지 혼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에서는 오직 儒道를 굳게 지켜내어 조용히 ‘存養省察’하고자 하는 춘정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듯 춘정은 正心과 存心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물욕에 가리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¹³¹⁾ 또한 물욕을 막기 위해서는 ‘經’ 위주의 실천공부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춘정은 결국 이러한 유가의 가르침을 본받아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신하이자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곤 하였다.

<巨蠹>

巨蠹巨蠹從何來	큰 벌레야 큰 벌레야 어디에서 왔기에
來此東國爲國災	동방에 찾아와서 재앙이 되었는고
食盡松柏與梓漆	송백과 가래나무 옷나무 남김없이 먹고 나니
山空野闊惟蒿萊	산야가 텅 비어 쑥대만 남았구나
嗟爾巨蠹食不厭	아아아 큰 벌레가 쉬지 않고 파먹으니
萬姓疾首徒哀哀	백성들이 쩡그리며 탄식만 하였다네

130) 卞季良, 『春亭集』 卷3, <次鄭宗誠韻>

131) 김홍영, 「변계량 철학 사상 연구」 p159~166.

安得壯士一去之
再使國中多良材

어찌하면 장사 얻어 단번에 제거하여
다시금 국중에 좋은 재목 기른다지¹³²⁾

위 시는 당시 어려운 백성들의 사정을 큰 벌레가 산에 있는 온갖 나무를 파괴하여 텅 비어버린 산야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큰 벌레는 수시로 침입하여 백성들에게 노략질을 일삼는 왜적을 비유한 것인데, 그 피해가 막심하여 백성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이에 왜적을 물리칠 계획을 가진 장사를 얻어 이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루빨리 도탄에서 건져야 한다는 춘정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이렇듯 춘정은 유학에 기반을 둔 유학자로서의 현실인식과 아울러 투철한 관인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작품을 통해 춘정은 학문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으며, 또한 치도의 궁리를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에서 찾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유가의 사상을 이어 받아 먼저 자기를 수양하는 修身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는 立身에 이를 것을 강조했으며,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 속에서도 대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임금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백성들에게는 훌륭한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했던 춘정의 관인의식의 발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處士의 傾向의 詩

관각문학이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표방한 문치주의와 사대교린의 외교적 목적, 그리고 훈구세력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한 문학적 도구로 본다면, 처사문학이란 관직에서 물러나 현실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132) 卞季良, 『春亭集』 卷2, <巨蠹>

많은 산림초야인들의 문학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사대부들은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을 돕고 백성을 보살피며 왕명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로서의 생활과 시골에서 한가로이 노닐며 道를 닦는 처사로서의 생활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변계량 역시 당시의 사대부로서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문장을 추구하는 관각문인의 대표적 인물이었지만 한편으론 세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즐기거나 동경하는 등의 처사적인 시를 많이 지었다. 이것은 관각적 경향의 시와는 달리 춘정의 개인적 감정과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사대부의 양면성을 고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의 시 중에서 처사적 경향을 보이는 시들을 은둔 및 자연동경, 불우함에 대한 극복인식, 산사에서의 한정 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隱遁 및 自然憧憬

1392년 조선조가 개국하고 이성계가 즉위하자 춘정은 병을 칭탁하고 출사하지 않는다. 이때를 춘정의 1차 은거시기(1392~1397)로 볼 수 있다. 이후 그는 부친의 3년 상을 마치고 1397년 여름에 벼슬길에 나갔다. 1398년에는 형 변중량이 정도전 일파로 몰려 1차 왕자의 난 때 희생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이 때 춘정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2차 은거시기(1398~1401)를 맞는다.

약 20여 년간 조선의 문형을 맡아 온 그에게도 은거시기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 때마다 춘정은 산 속 깊은 곳에서 두문불출하며 은둔하는 자신의 심경을 시로 나타내었다. 그가 벼슬을 버리고 은거를 택한 것은 왕조의 교체와 그에 따른 개인적 갈등, 관직에 대한 회의감 등이 원인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가 관직에 대하여 얼마나 회의를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登南山>

輪蹄九陌漲紅塵	수레바퀴, 말발굽 큰길 먼지 가득하니
滿目紛紛名利人	눈에 가득 어지러이 명리 좇는 사람들뿐
浮世百年渾似夢	뜬 구름 같은 인생 백년 모두 꿈같은 것
一回登眺一傷神	한 번 올라 바라보면 한번 마음 상하리 ¹³³⁾

세상을 塵土에 그리고 인생을 뜬 구름에 비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실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다. 결국 그는 순탄치 않은 현실에서 자기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세상 속에 자신도 살고 있음에 마음 상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다른 세계를 찾아 나선다. 그가 발견한 세계란 허영을 다투거나 부귀를 자랑하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탈속적이며 고답적인 자연으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그가 朝鮮王朝에 출사하기 전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했던 시기에 자신의 심경을 읊은 것이다.

<自遣>

一路長江曲	한 줄기 길따라 긴 강 구비져
村居小送迎	시골 집엔 손님 반겨 맞을일 적네
門閒連野色	한가한 문에 들빛이 이어져있고
窓靜帶溪聲	고요한 창엔 시냇물 소리 들렸네
舉酒知愁破	술잔 드니 시름이 다 사라지고

133) 卞季良, 『春亭集』 卷2, <登南山>

看山覺眼明 산을 보니 눈빛이 밝아지네
 遙思九陌上 멀리 서울 큰 길거리 생각해보니
 塵土滿簪纓 흙먼지 속 벼슬아치 가득하겠지¹³⁴⁾

새롭게 조선왕조가 건국 되고 그에게도 벼슬이 내려지지만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하면서 갈등은 잠시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이 시에서 서울의 벼슬길로부터 떠나 은거하는 생활 속의 담담한 심경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자연 속에서 술을 벗하면서 벼슬길에서의 갈등은 모두 잊은 채, 평온한 마음으로 유유자적하고 있다. 서울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은 속세의 먼지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아래 시에서도 역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을 玩賞하며 시를 지을 뿐 조금하게 세속적인 명예를 좇으려하지 않는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杜門贈陽谷>

物華隨節改 자연경관 계절 따라 바뀌어지고
 詩思與年深 시상은 해마다 깊어만 가네
 巢燕偏依棟 제비집은 서까래 한쪽에 짓고
 啼鶯政滿林 피꼬리 노래소리 숲속에 가득
 琴書閒不厭 거문고, 책 한가해도 싫증 안나고
 花木靜相尋 꽃과 나무 고요할 때 찾아가본다
 却笑馳名者 우습구나 명예 찾아 달려가는 이
 奔忙力未任 분망한데 힘은 아직 닿지 않으니¹³⁵⁾

134) 卞季良, 『春亭集』 卷1, <自遣>

135) 卞季良, 『春亭集』 卷1, <杜門贈陽谷>

‘杜門’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속과 연결된 문은 닫은 채 번
 다한 접촉을 끊고, 만물의 변화를 시상으로 가다듬어 표현해내거나 한가
 롭게 책과 거문고 그리고 꽃과 나무를 벗하고 있다. 하늘의 섭리로 만물
 이 계절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을 관조할 뿐 이를 거스르려 하지 않고 있
 으니 시상만 깊어져가고 있음을 자부한다. 세속의 명예를 구하느라 바쁘
 게 허덕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습게만 보이는 한가로운 심경을 즐기고
 있다.

<午吟>

綠樹陰濃近午天	푸른 수목 짙은 그늘 정오가 가까운데
白雲當戶正如綿	문 앞의 흰 구름 솜털과도 똑같아라
鳥啼花落茅齋靜	새 울고 꽃 지는 고요한 서재에서
剩得蒲團盡日眠	자리 깔고 누워서 하루 종일 잠 잤다네 ¹³⁶⁾

위의 시에는 춘정이 은거하고 있는 곳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깊은
 산속이라 한낮에도 그늘이 짙게 깔리고, 문을 열면 바로 앞에 흰 구름이
 마주하고 있다. 또 인적이 드문 곳이라 찾아오는 이가 없어 지저귀는 새
 와 꽃을 벗 삼아 하루 종일 낮잠을 즐긴다. 작자의 생각이나 감정의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풍광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자신을 풍광의 일부인 듯 그려내고 있다.

<夜坐>

獨坐渾無寐	혼자 앉아 한숨도 잠 못 자는데
茅茨清夜中	초가집에 청량한 밤 깊었구나

136) 卞季良, 『春亭集』 卷2, <午吟>

風枝驚宿鳥	나뭇가지 바람 일자 자던 새 놀라고
露草濕鳴蛩	풀잎에 이슬 내려 벌레소리 축축하네
待月愁天黑	달 기다려 캄캄한 하늘 수심겹고
攤書愛燭紅	책장 넘기며 초롱불에 고마웠지
眼前人事少	눈앞에 사람살이 일 줄어드니
始覺息塵蹤	세상 자취 멀어진걸 처음 느낀다 ¹³⁷⁾

위 시는 깊은 밤, 깊은 숲 속 초가집에서 자신 홀로 세상과 단절된 채 은둔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잠 못 이루는 밤, 밤이슬에 축축하게 젖은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 소리에 놀란 새들의 날개짓 하는 소리가 청각적으로 느껴진다. 여기에 캄캄한 하늘과 책에 어른거리는 붉은 촛불 등의 시각적 심상이 어우러져 시를 더욱 감각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마음속의 어떠한 근심도 없어 캄캄한 하늘 때문에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이 수심겨울 정도이고, 책장을 비춰주는 초롱불이 고맙게까지 느껴진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만의 평온한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는 그가 果州(과천)라는 마을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쓴 시이다.

<果州村舍>

來臥田園樂事多	전원에 누웠으니 즐거운 일 많은데다
一村形勝儘堪嘉	한 마을 경관도 그야말로 아름답네
山連冠岳圍平野	산은 관악에 이어져서 평평한 들 에워싸고
水下清溪作大河	물은 청계로 흘러서 큰 하천 이루었다
洞府天陰饒霧雨	골짜기에 하늘 흐림 안개 비 넉넉하고

137) 卞季良, 『春亭集』 卷1, <夜坐>

郊原歲熟足禾麻	교외에 풍년 들면 벼와 삼베 풍족하지
更憐野老襟懷好	게다가 착한 들 늙은이 마음씨 아주 좋아
日日相邀問酒家	날마다 서로 불러 술집을 찾는구나 ¹³⁸⁾

首聯에서는 과천 마을에서의 생활 자체가 즐겁고 경치 좋은 곳임을 말하였고, 頷聯에서는 관악산에 길게 이어진 산과 물을 묘사함으로써 아름다운 과천마을의 실제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頸聯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비가 충분히 내려 풍년이 든 교외의 모습을 통해 풍족하고 넉넉한 전원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尾聯에서는 서로 술을 대접하는 인심 좋은 시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원에서의 즐겁고 한가로운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인심 좋은 시골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이 시는 전원의 소박한 정경과 생활을 소재로 삼은 전원문학의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렇듯 자연에서의 즐겁고 평온한 생활을 잊지 못해서 인지, 춘정은 벼슬길에 오른 후에도 여전히 자연에서의 생활을 동경하였다. 그리고 몸은 비록 조선왕조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은둔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였다. 다음 시에서는 춘정이 벼슬한 후, 자기가 살고 있는 분주한 세상과 욕심 없고 평화로운 자연을 대비시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픈 마음을 간절히 드러내고 있다.

<次贈朴先生免詩韻>

野晴只愛吟驢背	노새 타고 갠 들판에서 시 읊기만 좋아하고
肥遯無心奉鶴頭	세상 떠나 벼슬에는 마음이 없다네
應笑世人緣底急	웃으시리 세상사람 줄대기에 다급하여

138) 卞季良, 『春亭集』 卷1, <果州村舍>

日奔南陌汗如流	날마다 땀 흘리며 거리에서 분주하니
燭殘松月供詩眼	촛불이 타고나면 술 달이 시료(詩料) 제공
瓶盡溪風醒醉頭	술병이 바닥나면 시내 바람 술 깨우네
安得掛冠從子去	어떡하면 관을 걸고 그대를 따라가서
湖南佳處任萍流	호남의 명승지를 부들따라 다녀보나 ¹³⁹⁾

첫 번째 시에서는 벼슬이나 세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연 속에서 자연을 벗하며 시나 지으며 살고 있는 박선생을 부러워하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은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부귀와 명예를 좇기에 바쁜 사람들로 가득할 뿐이라서 그의 자유로운 삶의 행태가 더욱 훌륭하게 느껴지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에서도 역시 자연 속에서 술과 달을 벗하며 시를 짓고, 마음껏 술에 취해 맑은 시내 바람을 쐬면서 살고 있는 박선생을 생각하며 부러워하고 있다. 결국 그는 ‘어떡하면 관을 걸고 그대를 따라가서 호남의 명승지를 부들처럼 돌아보지’라는 구절로 당장이라도 벼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심경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

<題柳茂典書詩卷>

宦遊還憶竹林眠	벼슬하다 죽림에서 자던 때를 회상하니
家在青山綠水前	푸른 산 푸른 물 그 앞에 집 있었네
何日長歌伴鷗鹿	어느 때나 갈매기 사슴들과 노래하며
免教聲利老吾年	명성 이익 벗어나서 내 명을 누릴는지 ¹⁴⁰⁾

위의 시 역시 벼슬하다 지난날을 회상하곤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심정

139) 卞季良, 『春亭集』 卷2, <次贈朴先生免詩韻>

140) 卞季良, 『春亭集』 卷3, <題柳茂典書詩卷>

을 나타낸 시이다.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집, 문을 열면 눈앞에 펼쳐지는 푸른 산과 푸른 물, 언제나 나의 벗이 되어주던 갈매기와 사슴들,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지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 명이 다할 때까지 누리고 싶은 마음이다.

<寄題澄心菴>

我生慕眞隱	이내 생애 진정 은둔 사모해 와서
愛此山林寂	이 산숲의 적막함을 사랑하였지
一落塵土間	한번 티끌 세상속에 떨어진 뒤로
乃爲名所迫	이내 명예 쫓기는 신세 되었네
江南有高士	강남쪽에 고상한 선비가 있어
卓爾免形役	우뚝하게 형체 부림을 벗어났도다
采石佳山水	채석강은 어디보다 산수 수려해
結茅此投跡	띠집 한 채 지어 놓고 투신 하였네
眠雲伴麋鹿	사슴들과 짝을 지어 구름에 자고
採藥度朝夕	조석으로 왕래하며 약초 캔다네

(중략)

欲往從之遊	찾아가 그를 따라 노닐고 싶지만
道途邈難適	가는 길이 멀어서 갈 수 없구나
永懷不可見	길이 사모만 할 뿐이지 만날 수 없어
恨無凌風翮	바람 탈 날개없음 한스럽다네 ¹⁴¹⁾

위의 시는 징심암이라는 암자에서 지은 시인데, 징심암은 장동문(章同聞)이라는 사람이 채석강 입구에 지은 암자이다. 이 시 역시 춘정이 벼슬

141) 卞季良, 『春亭集』 卷4, <寄題澄心菴>

하는 중에 지은 시로 마음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처음부터 그는 벼슬하는 관리답지 않게 ‘이내 생애 은둔하는 걸 사모해왔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題許漢城詩卷>라는 시에 ‘내 성질은 본래부터 사슴과 같은지라 그윽한 절경을 사랑해 왔다’¹⁴²⁾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처사로 살고자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티끌 세상에 빠져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다. 그러면서 자기와는 반대로 자연과 벗하며 살아가는 선비 장동문을 떠올리고 그를 따라 함께 노닐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다. 하지만 사모만 할 뿐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한스러운 마음을 금하지 못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정은 중앙 관료에 진출하여 治者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연에 묻혀 처사로 살고자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을 돕고 백성을 보살피며 왕명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로서의 생활과 시골에서 한가로이 노닐며 道를 닦는 처사로서의 생활을 추구하는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不遇함에 대한 克復意識

춘정은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 복잡한 현실상황 속에서 벼슬을 버리고 두 차례에 걸쳐 은거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춘정은 자신의 공명의식과 양심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으며, 불우한 처지 속에서도 도학을 연찬한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굳게 지키고자 하였다. 세속적 욕망으

142) 卞季良, 『春亭集』 卷3, <題許漢城詩卷>, “我本麋鹿性 江山愛幽絕”

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마음의 움직임에 담은 일련의 작품들은 이러한 정신자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가 출처문제에서 주로 맞서야 했던 대상은 절망적인 외부세계라기보다는 자기실현의 문제와 얽혀 있는 그 자신의 욕망이었다.

<晨興有感>

早年遊學也悠悠	어린나이 공부하러 아득하게 떠돌다가
只向名途走不休	단지 명예 그길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갔지
昨夜燈前倍惆悵	어젯밤 등불 앞서 한층 더 쓸쓸했던 것은
雨聲如別一年秋	그 빗소리 일 년 가을 이별하는 것 같아서라 ¹⁴³⁾

춘정은 가을 비 오는 밤에 등불 앞에서 스승의 문하에서 학문을 수업 하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大義는 이루지 못하고 功名에 얽매여 오직 쉽없이 달려온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고 悔恨에 잠겨 있다. 그래서 가을 비오는 소리에도 한해를 다 보내는 듯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래의 시 역시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잠 못 이루는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夜坐>

爐香燒盡已無烟	향로 속 향불 다타 연기도 안 나는데
坐到深更似學禪	야심토록 앉았으니 참선 공부 하는 듯
萬事關心眠不得	만사에 마음 끌려 잠들지 못하는데
窓中好月向人圓	창가에 반갑게도 둥근 달이 나타났네 ¹⁴⁴⁾

이 시는 어지러운 政局 속에 온갖 일이 마음에 걸려 밤이 깊도록 잠을

143) 卞季良, 『春亭集』 卷1, <晨興有感>

144) 卞季良, 『春亭集』 卷1, <夜坐>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춘정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차라리 향불 피워 놓고 참선에라도 들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심경을 표현하였다.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 둥근 달은 상대적으로 근심을 두드러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가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위안이 되는 대상물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好月’ 또는 ‘둥글다(圓)’의 표현을 통해서 춘정이 달을 반갑게 위안으로 삼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다음은 <感興>이라는 시의 일부인데 불우함과 그에 대한 춘정의 심리적 변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感興>

瑞蓮出衆卉	상서로운 연꽃은 초목 중에 뛰어나니
不染亦不靡	때 안 묻고 또한 화려하지 않다네
結根非其地	알맞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生此東海溟	영똥하게 이곳 물가에 났네
我行適見之	길 가다 때마침 내 눈에 띄어
悲歎未能已	마음 슬퍼 그지없이 탄식만 했네
世無濂溪翁	이 세상에 주렴계옹 가고 없으니
誰知是君子	연꽃이 군자인 줄 그 누가 알fi
政恐霜雪逼	정말로 두려운건 눈보라치면
紅芳難久恃	붉은 꽃 오래보기 어려워서라 ¹⁴⁵⁾

위의 시는 <感興> 제 3수로써 군자를 연꽃에 비유하여 찬양하면서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시이다. 동쪽 바닷

145) 卞季良, 『春亭集』 卷1, <感興>

가 외진데 피어 있는 아름다운 연꽃을 찬양하면서, 그 옛날 「愛蓮說」을 지어 연꽃을 “꽃 중의 군자”로 찬양한 주돈이 선생 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채, 오히려 눈과 서리에 상하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여기서 연꽃은 덕을 닦았으나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어지러운 정국에 희생되는 불우한 군자, 즉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수양을 하여 덕을 쌓은 자신과 같은人材가 입신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다음의 제 4수는 『東文選』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인데 입신의 어려움과 세월의 빠름을 읊고 있다.

春蠶復秋蛾	봄철 누에 가을에는 나방이 되니
歲月無停期	세월은 그야말로 멈출 때 없네
人生非金石	인생은 금석처럼 단단치 않아
少年能幾時	젊은 시절 얼마나 유지 되겠나
馳名日拘束	허명에 치달리어 날마다 엮매였으니
靜言心傷悲	고요히 생각하니 마음 상한다
既壯不努力	장성해서 학문에 노력을 안 해
白首而無知	백발에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思之一長歎	생각하면 온통 길게 탄식 나오나
庶幾來可追	오는 것은 고쳐 따르기 바랄 뿐이네 ¹⁴⁶⁾

세월은 멈추지 않고 빨리 가고 사람의 삶도 항상 젊은 시절만 있는게 아니어서 젊은 시절은 잠시일 뿐이다. 그런 중에 세상에 이름을 내기 위해 날마다 세속의 일에 엮매여 허덕이고 있는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146) 卞季良, 『春亭集』 卷1, <感興>

마음만 상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 학문에 노력하지 않아 늘그막에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한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느 위치에 서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상황에 부딪칠 때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구에 가서는 『論語』에 나오는 초나라 狂接與가 공자에게 한 말 “鳳새여, 鳳새여 어찌 덕이 쇠했는가, 지난 일은 바르게 할 수 없고 오는 것은 따를 수 있으리. 그만두자, 그만두자 지금에 정치하는 자들은 다 위태하도다”¹⁴⁷⁾의 구절을 끌어다가 “오는 것은 고쳐 따르기 바랄 뿐이네”라고 하여 미래에 대해 바르게 고쳐나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제 7수는 군자의 의연한 처신을 소인들의 경박함과 대비시키면서 찬양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千門桃與李	수많은 집 피어있는 桃李花는
當春各爭媚	봄철 맞아 각기 미태 뽐내는구나
兒女竟耽翫	아녀자들 모여서 구경하는데
爛熳誇富貴	시끄럽게 부귀를 자랑하네
一夕龍火飛	어느 저녁 뇌성벽력 일어나니까
摧脫卽枯卉	남김없이 떨어져 고목만 남았네
不見南山松	그대는 남산 소나무 못 보았나
歲寒含晚翠	겨울이 되어도 여전히 푸른 걸 ¹⁴⁸⁾

봄이 되면 집집마다 흐드러지게 피는 복숭아, 오얏꽃은 한 때의 아름다움을 다투어 자랑하는데 하룻밤 비바람에 모두 시들어 죽는다고 하면서

147) 『論語』 「微子」

“楚狂接與 歌而過孔子曰 鳳兮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已而 今之從政者 殆而”

148) 卞季良, 『春亭集』 卷1, <感興>

추운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의연함을 찬양하고 있다. 제 7,8구는 『論語』의 “추운 겨울이 된 후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¹⁴⁹⁾는 구절을 인용하여 군자의 입신이란 소나무의 의연함 과도 같은 정신적 자세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즉 세월이 지나면 소나무의 의연함이 저절로 드러나듯이 세상 명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을 알아줄 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불우한 자신의 처지를 위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춘정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을 은나라의 백이숙제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은거심리를 정당화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그가 백이숙제의 절개를 칭송한 <首陽行>이다.

<首陽行>

瞻彼首陽山之幽	그윽한 수양산 저곳을 바라보니
我思古人何悠悠	고인 생각 내 심정이 왜 그리도 유유한지
棄國不啻若弊屣	헌 신발 버리듯이 나라를 썩개치고
睥睨四海歸于周	주 나라로 귀순한 천하를 흘겨봤네
周家王業惟日彊	주 나라 왕업이 날마다 강해져서
赫怒欲救斯民瘡	크게 노해 백성을 구제하러 나섰다네
三千一心貔虎士	일심으로 똘똘 뭉친 삼천 명의 맹장들
勢甚建瓴誰得當	막강한 그 세력과 그 누가 맞서겠나
奮髯一語柱股衰	은의 멸망 막아보려 분연히 간했으나
確乎大經難可違	확고한 큰 법도 어기기 어려웠지
黃鉞白旄色沮喪	황월과 백모에 사기가 꺾이니
天爲之高地爲卑	하늘은 높아지고 대지는 낮아졌지

149) 『論語』 「子罕」
 “子曰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翻然歸來首陽峽	마음을 바꿔 먹고 수양산에 들어가니
寧餓不食周粟粒	굶더라도 주의 곡식 먹지를 앓았다네
高歌採薇竟無悔	채미가 소리높혀 부르며 후회 안하니
淸風萬古吹六合	그 청풍 영원히 온 천지에 전해졌네 ¹⁵⁰⁾

사람이 출사를 하거나 은거를 할 때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했다. 길재를 조선의 선비들이 높이 숭앙하는 까닭도 動靜의 상황에서 절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춘정도 이에 대한 신념이 뚜렷했음을 바로 이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은의 멸망 막아보려 분연히 간했으나 확고한 큰 법도 어기기 어려웠지’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춘정은 은나라와 주나라의 관계에서 하늘의 확고한 법도가 주나라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백이와 숙제의 행동에 대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주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동시에 백이숙제의 높은 절개를 숭상하고 있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자신이 벼슬한 조선왕조의 개국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자신의 은거심리까지 정당화시키고 있는 장치인 것이다.

이상의 춘정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군자의 입신이란 세속에 영합하지 않는 고고함을 지키는 것이라 하였다. 즉 조금씩 세속에 영합하려 하지 않고 군자로서의 심성의 수양에 정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의연한 자세로 살고자 했던 춘정의 태도는 관각적 경향의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군자의 자기수양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3) 山寺에서의 閒靜

150) 卞季良, 『春亭集』 卷4, <首陽行>

춘정이 남긴 한시 가운데에는 어떠한 정치적, 사상적인 개입 없이 자신의 순수한 서정을 읊은 시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행시나 유람시, 사찰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때로는 스스로 한가로움을 즐기는 여흥, 계절의 변화로부터 느끼는 시흥을 표현한 것들이다.

특히 춘정은 절을 소요하면서 여기서 얻은 감회를 표현한 시들이 많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유가의 길을 택했던 춘정이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교를 추구했던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에서는 대부분 절의 주변 풍경 묘사나 사찰의 한적함, 나그네로서의 객창감이나 완상, 면학, 수련, 요양, 명상 등의 한정이 드러나 있다. 또한 춘정의 호불적 성격은 그의 문학이 처사적 문학으로 분류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登山題惠上人院>

山徑迢迢半入雲	높은 산길 반쯤 구름 속으로 나있으니
茲遊足可避塵喧	이 유람이 속세를 피하기에 족하구나
百年身世客迷路	백 년동안 이 몸은 객이 되어 길을 잃고
萬壑烟霞僧閉門	뭇 계곡에 노을 안개 스님은 문을 닫네
晴澗束薪隨野老	맑은 시내 나무 묶어 늙은이를 따라가다
秋林摘實共寒猿	가을 숲속 열매 따서 원숭이와 함께하네
我來欲問楞伽字	당도하여 능가의 뜻 물으려고 하자마자
合眼低頭無一言	눈 감고 머리 숙여 아무 말도 하지 않네 ¹⁵¹⁾

위의 시는 춘정이 산에 올라 혜상인의 암자에 쓴 것이다. 首聯에서는

151) 卞季良, 『春亭集』 卷1, <登山題惠上人院>

구름 속에 반쯤 들어간 깊은 산길을 걸어가니 속세와 멀리 떨어져서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음이 실감된다고 표현하였다. 이어서 頷聯에서는 깊은 산속이라 길 잃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오랜 세월 세상에서 나그네로 떠도는 모습인 듯 그렸으며, 깊은 산속 골짜기에 안개·노을 드리우자 오가는 이 없어 문을 닫는 스님의 행위를 통해서 絕俗의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시냇가에서 나무 묶는 들 늙은이 따르고 숲속에서 열매 따며 원숭이와 사는 혜상인의 모습을 번잡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과 하나 된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다. 尾聯에서는 불가의 뜻을 묻고자하였지만 아무 대답 없는 스님의 모습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초탈의 경지를 느끼며 스님의 삶을 찬양하고 있다.

한편 춘정은 많은 절을 여행하면서 시를 짓는데 대부분 고요하고 한가한 사찰 풍경을 포착해내어 새로운 시적 영감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次靈通寺壁上韻>

地僻塵機息	궁벽한 곳이라서 티끌 가라앉고
樓高暑氣微	누대가 드높아 더위 가시네
鳥隨鳴磬下	새들은 풍경 소리 따라 내려가고
僧趁暮鍾歸	스님은 저녁 종소리에 돌아오네
移石雲生袖	돌맹이 옮기자 소매에 구름 일고
看松露滴衣	소나무 처다보다 이슬에 옷 적시네
秋霜山菓熟	가을 서리 산과일이 익었는데
更此叩巖扉	또다시 바위 문을 두드리네 ¹⁵²⁾

152) 卞季良, 『春亭集』 卷2, <次靈通寺壁上韻>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경기의 장단도호부에 오관산 아래 영통사가 있는데 이 절에는 김부식이 지은 <僧統義天塔銘>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영통사는 송도에서 경치가 가장 뛰어난 명승지로서 이규보, 김구용, 권근, 변계량, 이원 등 쟁쟁한 문인들의 문학적 영감을 불러 일으켰던 곳이기도 하다.

춘정은 이처럼 유서 깊은 명승지를 여름에 찾아 간다. 首聯에서는 영통사는 매우 궁벽한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으니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 곳인데다 절의 누각이 높은 곳에 있어 더위가 다 가신다고 하였다. 춘정은 이러한 정경을 먼지의 가라앉음, 누대의 소소함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頷聯과 頸聯에서는 ‘새들은 풍경 소리 따라 내려간다’, 또는 ‘돌맹이 옮기자 소매에 구름 인다’ 와 같은 영통사의 저물녘 풍경묘사를 통해 절이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가을 풍경이 맑고 깨끗하여 세속과는 멀리 떨어져있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尾聯에서 이러한 깨끗한 세계와 자신의 정신세계를 동일시하고자하는 바람이 바위 문을 두드리고 그 곳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로 나타나 있다.

<題華菴淵月軒詩卷>

華崑儘幽寂	화암사 그 절은 정말로 한적해라
杳在蒼山根	저 멀리 아득한 청산 밑에 있구나
上人此安禪	스님네 이곳에서 편안히 참선하니
佳致難具論	아름다운 그 운치 설명하기 어렵다네
淵澄啓玉鏡	맑은 연못 거울을 열어놓은 듯
月映如金盆	연못 속의 둥근 달은 금동이 같다
淸光淨無礙	맑은 빛은 티 없이 깨끗하고
駭浪終不翻	놀란 물결 결국 번득이지 않는다

師心頗自適	대사 마음 상당히 한적하여서
夜深坐高軒	야심토록 연월헌에 높이 앉았다
嗟余溺宦海	아쉽게도 이 몸은 벼슬에 빠져
十年猶駿奔	십 년이나 여전히 허둥대는데
世界苦昏黑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爭奪仍紛紜	쟁탈 벌여 시끄럽게 떠들고 있네
何當借餘輝	어찌하면 남아도는 빛을 빌려서
照我濯水源	내 몸 비취 근원을 씻을 수 있나 ¹⁵³⁾

이 시는 화암사에 들러 지은 시로 앞부분에서는 화암사 주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화암사, 그 앞에 맑고 잔잔하여 거울 같은 연못, 물에 비쳐 밝게 빛나는 금동이 같은 둥근 달 등의 맑고 깨끗한 풍경 묘사를 통해 절이 있는 공간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임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 말없이 정좌하여 참선하고 있는 스님을 그려서, 한적한 이 곳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다 온 자신만 따로 동떨어진 듯한 느낌임을 말하고 있다. 자신은 비록 세상에 물든 속인이지만 이곳의 빛을 빌려 조금이라도 자신의 근원을 씻고자하는 강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定房寺>

臥病經時日月多	병 앓아 누운 동안 세월이 많이 갔네
迷方着處卽吾家	헤매다 닿는 곳이 내 집인가 보구나
一庭細雨無人到	뜰에는 가랑비 찾는 사람 없는지라
閒看胡僧手種花	스님이 꽃 심는 것 한가로이 구경하네 ¹⁵⁴⁾

153) 卞季良, 『春亭集』 卷2, <題華菴淵月軒詩卷>

154) 卞季良, 『春亭集』 卷2, <定房寺>

춘정은 병으로 소모했던 세월과 함께 신념과 욕망 사이의 갈등으로 헤매었던 시절을 반추하고 있다. 그러나 ‘헤매다 닿는 곳이 나의 집’이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고통과 방황 뒤에 정신적 평정을 얻고 있다. 그의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삶 속에서 발견한 어떤 의미로 인한 것인데 이는 작품의 후반부에 드러난다. 실비가 내리는 뜨락에서 꽃을 심는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인의 형상을 통해 그의 내면이 기쁨의 감정으로 은은하게 물들어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실비가 내리는 빈 뜨락과 꽃과 스님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아름다움, 즉 부드러움과 소박함 그리고 고요함을 동반한 삶의 정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춘정은 욕망의 성취와는 거리가 먼 조출하고 소박한 생활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宿金神寺>

金神洞府深復深	금신동 그 골이 깊고도 깊어라
時有老僧邀獨尋	때때로 노승이 초청하러 찾았었지
鹿麋穩眠草如織	사슴이 잠든 곳에 수풀이 뻗뻗하고
蝙蝠亂飛山正陰	박쥐가 날아가자 산그늘이 지는구나
石根崑泉碎玉斗	돌샘 소리 옥 술잔 부서졌다 싶었는데
風吹蘿月散黃金	바람은 나월 스쳐 황금빛이 흩어지네
曉來欲覺聞鍾坐	새벽 잠 깰 무렵 종소리에 앉았는데
當日少陵知此心	그 당시 소릉도 이 마음을 알았겠지 ¹⁵⁵⁾

이 시는 춘정이 금신사에서 하룻밤 묵으며 쓴 시이다. 금신사라는 절은 춘정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데 <登金神寺>의 ‘처음에 올라가자 청천인가

155) 卞季良, 『春亭集』 卷2, <宿金神寺>

싶었다네 (初登却似上青天) 별들은 창에 닿으니 능선이 펼쳐졌고 (星臨戶牖 開山脊)’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깊고 높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다. 首聯과 頷聯에서는 바로 이 점을 부각시켜 사슴이 잠든 곳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베를 짜놓은 듯 뻗뻗이 나있고, 저녁이 되자 박쥐가 날아간 자리에 산그늘이 진다고 표현하여 금신사의 위치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밤에 잠자리에 누우니, 너무나 고요한 나머지 들숨 흐르는 소리가 마치 옥 술잔이 부서지는 듯하고, 달빛은 바람에 흩어지는 듯함을 묘사하였다. 尾聯에서는 어느덧 새벽이 되어 풍경 소리에 일어나 정좌하니 옛날 당나라 때의 처사 두보가 떠오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마지막 구절은 두보가 지은 <遊龍門奉先寺>라는 시 중 ‘欲覺聞晨鐘 令人發深省’의 구절을 연상케 한다. <遊龍門奉先寺>는 두보가 하늘과 맞닿을 듯한 우뚝 높은 용문산의 고찰 봉선사 절집에 머물면서 짜늘한 새벽 공기를 뚫고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이른 새벽 범종소리에 세속의 온갖 때에 찌든 속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낸다는 자기성찰의 내용을 담은 시이다. 춘정은 지금 맑고 청량한 산사에서 조용히 참선하는 자신의 상황을 그 옛날 두보의 처지와 동일시하며 자신도 세속인으로서의 자기를 잊고 맑게 거듭나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 춘정이 한적한 산사 등을 배회하며 혼자 사색하였던 감회를 읊은 시들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가로움과 적막함, 우울함과 쓸쓸함도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대체로 산사의 분위기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대비시켜 묘사함으로써 그곳의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와 스님들의 초탈의 경지를 동경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다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현실상황의 갈등에서 오는 수심과 잡념을 맑게 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

V. 文學史的 意義

변계량은 태종과 세종의 양조에 걸쳐 오랫동안 문형의 자리에서 나라의 문한을 주관한 문신 대학자이다. 經史에 정통하고 학식이 고급에 사무치며 시문이 탁월하여 사대교린의 사명은 물론 나라의 문한과 왕실의 문서를 거의 도맡아 주관하였다. 그의 손을 거친 문사는 워낙 전아하고 정화로워 우리 조정의 문신들은 물론 멀리 중국의 문신에게까지 회자되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세종대왕은 후학들에게 송유국정의 해범으로 삼기 위해 그의 유고를 집현전에 보내서 수교하게 한 다음, 경상 감사에게 내려 보내어 간행, 보급시켰던 것이다. 이렇듯 그의 시들은 시관이나 시풍, 문사의 기교에 있어 모두 주옥같은 정수작들이므로 조선 초기의 시문학 연구에 있어서 값진 자료가 될 것이다.

춘정은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을 존송하는 유학자였기에 그의 사상은 성리학적인 도통을 후세로 이어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것은 후에 載道之器的 문학관을 형성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道만큼 文도 중시하여 詩作의 효용성을 중시하였으므로 당시의 왕조와 임금을 찬양하는 데에 화려한 수식의 문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후에 성현, 서거정으로 이어지는 관각 문인의 시풍으로 이어졌다.

한편 사상에 있어서 춘정은 개인적으로는 유교이념에 정통한 유학자였지만 종교적 기원의 대상으로서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가적으로는 유교이념의 확대와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사회 안정을 위해 불교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佛教的 遺習이 남아있던 사회에서 유교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던 조선 초기 儒臣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도교를 포용하여 儒·佛·仙 三教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相互 會通的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

다. 이러한 춘정의 儒·佛·道 調和思想은 실제 현실에 바탕을 둔 ‘時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춘정의 관각적 경향의 시는 조선전기 한시 창작의 전범이 되었다. 정도전, 권근, 변계량으로 이어지는 조선전기 관각시를 계승하여 후대의 성현, 서거정에게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천혜봉의 춘정집 해제에서 “세종대왕이 후학들에게 송유, 국정의 해범으로 삼기 위해 간행 보급시켰다”란 말을 통해서 본다면 변계량의 문은 사회 교화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춘정이 그의 시에서 “백성의 마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고, 하늘의 명령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 향배가 항상 일정하게 고정돼 있지 않으니 마땅히 얼음을 밟듯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고 밝힌 것은 오늘날 귀감으로 삼아야 할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남긴 처사적 경향의 시를 통해 춘정의 개인적인 갈등과 사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당시 사대부들이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을 돕고 백성을 보살피며 왕명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로서의 생활과 시골에서 한가로이 노닐며 道를 닦는 처사로서의 생활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교시와 불교관련 저술을 남긴 것들을 미루어 조선 초기에 대립하고 있던 유교와 불교를 조화시키고자 노력했던 당시 儒臣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춘정은 麗末鮮初의 격변기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조선 전기 정치·사회·문화적인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文衡으로서 공평하게 인재를 선발하였고, 임금을 보좌하여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무엇보다 왕권강화에 힘썼다. 또 作詩활동을 통해 조선왕조의 찬양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에 못

지않게 자신의 내면을 대변해주는 서정시들도 많이 남겼다. 이것이 바로 춘정의 한시가 조선의 한문학 지평을 크게 넓히는 데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¹⁵⁶⁾

VI. 結論

지금까지 『춘정집』을 중심으로 춘정 변계량의 시문학을 고찰해 보았다. 춘정이 활동했던 시기는 고려에서 조선왕조로의 교체라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대외적으로는 元·明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倭寇와 紅巾敵의 침입으로 혼란이 거듭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불교에서 벗어나 정치·사회적으로 유교가 사회전반을 규정하는 틀로 자리 잡았던 시기이다.

이처럼 유학을 國是로 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문학은 주자학을 基調로하여 道를 구현하는 것, 즉 ‘文以載道’를 근거로 하는 도학적 문학론이 기본적 문학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정치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수사적 기교를 반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성리학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점점 발전하여 16C에 이르러서는 文以載道的 문학관이 완성도 있게 정립되는 발판이 되었다.

춘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찍부터 학문에 힘썼는데, 太宗이 즉위함과 동시에 높은 벼슬에 올라 20년간 文衡의 자리에서 사회전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비록 중간에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기도 하였지만 조선 최초의 문형으로서, 유교적 통치이념의 보급과 실행으로 왕권강화에 힘썼으며 다른 한편으론 불교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儒·佛 調和思想을 견지 하였고, 많은 詩文활동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

156) 이종건, 『조선시대한시작가론』, 이회문화사, 1996.

었다. 특히 조선왕조의 건국이라는 당시의 분위기에 맞추어 조선왕조와 임금을 찬양하고 새 왕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품을 통해 관각적 문인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벼슬을 하면서도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픈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각적 문인으로 일컬어지는 춘정의 문학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춘정의 시세계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춘정은 조선 초기에 싹트고 있던 載道之器的 문학관에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문학에 있어서도 道를 밝히고 儒道를 바로 세우려는 내용의 작품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춘정은 名보다 實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문학관을 가지고 강경보다는 제술을 강조하였다. 이는 조선 전기라는 시대적 현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時中'을 찾고자 했던 그의 현실적 문학관을 반영한 것이다. 또 춘정은 문학을 내부에 흐르는 性情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밝히는 효용론적 측면에까지 접근하고 있다. 비록 당시의 보편적인 문학관이었던 載道之文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전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학 창작을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외견과 내용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춘정의 사상과 문학관을 중심으로 관각적인 경향과 처사적인 경향이 춘정의 시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1) 관각적 경향의 시에서는 춘정의 시를 조선왕조의 찬양 및 권계, 선정의 의지 및 당부, 유자로서의 관인의식이 나타난 시로 나누어 당시 관각적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그는 조선 초기 문형으로서 무엇보다 조선왕조의 건국을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썼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위해 왕과 관료들에게 권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직접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선정을 베풀고자 노력했음은 물론 다른 관료들에게도 당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수양하여 남에게 미쳐야한다는 공자의 말씀을 본받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면강하여 훌륭한 관인으로서의 본보기가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들은 시관이나 시풍, 문사의 기교에 있어 모두 주옥같은 정수작들로써 조선 초기의 시문학 연구에 있어서 값진 자료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경향은 조선 초기 문학의 전범이 되어 후에 성현, 서거정으로 이어지는 관각 문인의 시풍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처사적 경향의 시에서는 춘정의 시를 은둔 및 자연동경, 불우함에 대한 극복의식, 산사에서 한정시로 나누어 당시 벼슬을 하면서, 또는 은거생활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춘정의 처사적 면모를 추출해 보았다. 춘정은 조선건국 후 두 차례에 걸친 은거시기가 있었으며, 이때 지어진 시들은 그의 처사적인 면모를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벼슬길에 나아간 후에도 자연에서의 생활을 동경하며 그리워한 시들을 통해 그의 내면에는 처사적인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은거시기에 또는 낮은 관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명의식과 양심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토로한 시들을 통해 그의 내면적 갈등과 고통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산사에서 불교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고 수련, 참선을 행하는 내용의 山寺詩를 통해 정치적으로는 유교를 택했지만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불교에 정진했던 춘정의 모습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춘정의 관각풍 시들은 물론 춘정이 내면에 가지고 있던 처사적인 측면까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현이 『慵齋叢話』에서 언급한 춘정이 文弱하며 성격에 있어서도 인색하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과장과 왜곡이 있었음을 확인하

였다. 요컨대 춘정은 조선 초기 관각문학의 전범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조선 한문학의 지평을 크게 넓히는 데에 기여한 인물이다. 앞으로 춘정이 남긴 여러 방면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조선전기의 문학적 성격을 구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조선의 문형을 20년이나 맡았고 세종 조에 집현전의 책임자였음을 감안할 때 한글 창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춘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 卞季良, 『春亭先生文集』, 경산대학교 국학연구소, 1993
『春亭集』, 韓國文集叢刊 제 8권, 민족문화추진회, 1990
- 徐居正, 『東人詩話』, 보경문화사, 1991
- 洪萬宗, 『詩畫叢林』, 아세아문화사, 1973
- 成侃, 『大東野乘』, 민족문화추진회,
徐居正, 『東文選』, 민족문화추진회
-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 李肯翊, 『練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 金宗瑞, 『高麗史節要』, 민족문화추진회
- 金宗直, 『佔畢齋集』, 민족문화추진회
- 金宗直, 『靑丘風雅·國朝詩刪』, 아세아문화사, 1983
-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87

2. 單行本

- 金相洪 외, 『韓國文學思想史』, 계명문화사, 1991
- 金性彦, 『韓國 館閣詩 研究』, 동아대출판부, 1994
- 金興圭, 『韓國文學의 理解』, 민음사, 1986
- 裴宗鎬, 『韓國儒學史』, 연대출판부, 1992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보성문화사, 1988

-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보성문화사, 1988.
- 李炳漢, 『增補 漢詩批評의 體例研究』, 통문관, 1985
- 李佑成, 『韓國의 歷史像』, 창작과 비평사, 1982
- 李鐘建, 『朝鮮前期 漢詩批評』, 새문사, 1992
- 李鐘建외, 『韓國漢文學概論』, 보진재, 1997
- 林熒澤, 『韓國文學史의 視覺』, 창작과 비평사, 1984
- 鄭杜熙, 『朝鮮初期 政治 支配勢力 研究』, 일조각, 1995
- 鄭堯一, 『漢文學批評論』, 인하대출판부, 1990
- 金鎔大외, 『韓國古傳詩學社』, 기린원, 1979
- 趙東一외, 『韓國文學講義』, 길벗, 1994
- 趙東一, 『韓國文學通史』 2, 지식산업사, 1989
- 韓祐旻, 『儒敎政治와 佛敎』, 一潮閣, 1994
-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思想 研究』, 지식산업사, 1987
- 『朝鮮前期 社會經濟 研究』, 을유문화사, 1983
- 韓永遇, 『朝鮮 前期 社會 思想 研究』, 을유문화사, 1983
- 韓永愚, 『朝鮮王朝의 政治·經濟基盤』 韓國史 9, 1974,
-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김풍기, 『朝鮮前期文學論研究』, 대학사, 1996
- 이종건, 『朝鮮時代漢詩作家論』, 이회문화사, 1996.

3. 論文

- 曹圭益, 「卞季良 樂章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회, 1989.
- 趙榮鎬, 「春亭 卞季良 漢詩의 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오연정, 「朝鮮初期 卞季良의 불교인식」,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유호진, 「卞季良 시의 변모와 그 문학사적 의의」, 한국시가학회, 2003.
- 李慶洙, 「卞季良 시의 입신과 출처」, 한국漢詩작가研究2, 1996.
- 변수남, 「卞季良의 문학연구」, 朝鮮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 김성언, 「春亭 卞季良의 관각풍 한시에 대하여」, 동아대학교석당전통문화 연구원, 2007.
- 姜明官, 「鄭道傳의 載道論 연구」, 단국한문학회, 1992
- 金明淳, 「春亭 卞季良의 사상과 문학세계」, 논총간행위원회, 1992
- 金成龍, 「여말선초 時運論의 문학관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 金時業, 「고려후기 사대부 문학의 성격」,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9
- 金弘旻, 「卞季良의 경세사상연구」, 유교사상연구4, 1991
- 「卞季良의 철학사상연구」, 민족문화14집, 1992
- 閔丙秀, 「조선전기의 문학관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1집, 1976
- 蘇秉女, 「陽村 權近의 문학관과 시세계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1998

ABSTRACT

A study on Byon gye-ryang(卞季良)'s Poetry

Park, su-jin

Dept. of Chinese Classics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While Chunjung Byongyeryang(1369~1430) had lived from King Kongmin's period to King Sejong's, he is the representative person experiencing a transition period like replacing Korea to Joseon. He wandered from a government position in the last stage of Korea. Yet as soon as King Teajong throned, he ranked high as a governor and then had absolutely influenced the whole society for 20 years.

Though Chunjung has been researched as a pupil classified in literature which governors used, it is obvious that his poem is too complex to classify it as a kind of the above or literature which recluses used. But the research of his literary world, performed until now, is limited because of just analyzing a side among its features intensively. Accordingly, In this study, his literary world is researched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he periodic condition in which he lived, his idea and works, escaping the existing formality.

Though Chunjung was an orthodox confucian personally and contributed to expand Confucian idea nationally, he regarded

Buddhism as the religious origin and recognized its function to stabilize his society. His being like this showed the Confucian's standpoint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Confucian nation historically in the early stage of Joseon. Besides, it showed that he sought the harmony between 3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by embracing Taoism because 3 religions were not regarded as opposition one another, which means that his idea of the religious harmony showed an image of Sijung, the high ranked governor in the period of Joseon, based on an actual environment.

His literary world was influenced by Jeadojigi literary idea which began to be developed in the early stage of Joseon.(Jeadojigi means that literature includes moral worth) On the other hand, because of esteeming literature as well as morality, he used splendid modifiers generously to admire the dynasty and king in those days. Poems of governor style and recluse one revealed in his inside is considered, focusing on his literary ideas.

1) In the poems of a governor style, his poems are distinguished into several contents such as a praise and admonishment of Joseon dynasty, a request and a will of good government and official awareness as a Confucian and then are researched by being related with his position as a governor

2) In the poems of a recluse style, his poems are distinguished into several contents such as seclusion, longing for nature, overcoming against misfortune and a mountain temple and then his position as a recluse revealed in a life in seclusion or official life is inferred.

In accordance with a literary history, his Confucian awareness

played a role in linking Confucian ideas with coming age, which contributed to form Jeadojigi literary ideas afterward. Also his stylistic trend was succeeded to poetic one of a governor style whose successors are Sunghyun, Soegeojung and the like.

This result of the study is helpful not only to understand his literary world entirely but to reappraise his position o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by analyzing Chunjung's poem, not noticed until now.